DEC 2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583 1981년11월30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November 30, 1981

한국일보 토론토

◇실협 회장단에 당선된 차선겸 후보팀, 좌로부터 조기연 부회장, 차선겸 회장, 김이열 부회장.

실협총회에 360명
차선겸씨 당선 230대 124표

26일 거행된 제6대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장단선거에서 차선겸 후보팀이 임철원 후보팀을 230:124로 누르고, 앞으로 2년간의 실협회장에 당선됐다. 이날 총회에 모인 회원수는 실협선거사상 초유로 유효 회원수 약 450명의 80%인 360명이라는 투표율을 기록,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공개리에 진행된 개표에서 당선권인 180표선을 넘자 차선겸 후보는 차분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낙선된 임철원 후보와 함께 등단, 회원들의 박수 속에 당선인사를 했다. 차회장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신 회원들과 그동안 저를 밀어준 참모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고 제1성을 터뜨렸다.

정각6시부터 총회장인 돈·밸리 홀리데이·인에는 회원들의 인파로 장사진을 쳤다.

예년에 1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것을 감안, 175명정도로 디너와 함께 총회장을 예약했던 실협측은 혼란을 우려했으나 회원들각자가 질서를 유지해 총회와 선거는 평온 속에 치러졌다.

입장 시작후 30분만에 이미 60명 이상이 입장하고, 100여명이 줄을 지어 총회의 열기를 짐작케 했다.

아기를 안고 나온 젊은 아빠, 또 20여명의 여성회원들도 아무 불평 없이 차례를 기다려, 회원고유번호와 입장권을 교환했다.

7시경부터 순서대로 디너를 마친 회원들은 7시45분 정각, 김명정 전임 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아어 총회를 시작했다.

몰려드는 회원들과 시간상 총회의 순서를 바꿔서 신임회장단 선출을 먼저 했다.

이국영 선거관리 위원장의 선거공포에 이어 양후보는 마지막 선거연설을 했다.

차선겸 후보는 그동안지상을 통해 발표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지지를 부탁했고, 임철원 후보는 성심껏일하겠으니 밀어달라는 요지의 말을 마쳤다.

접수번호 순서대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회원들은 차례차례 자기가 마음먹은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9시30분경 개표에 들어갔을 때 남아있던 회원수는 160여명. 개표 시작전 김명정 전임 부회장의 사회로 약간의 여흥순서도 가졌다.

차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회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당선을 축하하고, 임후보의 낙선을 위로해 주었다.

차선겸 신임회장은 27일 아침 본사와의 전화에서 "회원, 참모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많이 오셨던 회원들의 기대에어긋나지 않게 조직등을 강화,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하겠다. 그리고 낙선팀에 대한 자리안배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총회에서는 이형인 전임회장 퇴임사와 같이 신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차선겸 신임회장에게 의장 바톤을 터치, 차회장의 진행으로 계속됐다.

총회는 무기명투표로 이춘수, 백경락, 장추국, 서동준 4씨를 공석중인 이사 15명의 이사선임 위원으로 선출했다.

위 4명의 이사선임 위원은 신임회장단과 함께 공석된 이사를 금년내로 선출케 된다.

◁실협선거 낙수▷

26일의 선거는 각종기록을 남겼으며 본보 편집부가 조사한 여론조사(13일자)와 거의 일치를 보았다.

2주전 약 320명의 회원 등록 공고가 나갔을 때 본보 조사는 투표율을 70.2%인 230명으로 추정했으나 그 이후 늘어난 약 120명의 회원이 100%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 350명은 이번 투표자수 360명과 거의 일치한다.

◇인기도를 물은 2항에서 7:3으로 차후보 유리를 예상한 것도 230:124의결과를 나타내 대동소이. 열세였던 임후보팀도 전세를 만회하기에는 시간적 으로 부족했다.

◇열전을 치렀던 선거답지 않게 혼란이나 휴유증은전무상태— 대리투표나 무더기표등 부정선거기도도 없었다는 것이 중론.

당락이 판명되었을 때, 양후보는 서로 얼싸안고 협력을 다짐했다.

패전후 임후보는 "투표자수를 계산 못했던 것이 패인이다. 앞으로 실협의 발전이라면 아끼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말했고 하소영씨는 "어쨌든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바로 실협이 장족의 발전을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제7면에 계속)

◇입추 여지없이 들어서 투표진행을 지켜보는 실협회원들. 이날 370여명이 참석했다.

◁금주의 행사▷

(11월30일~12월6일)

◇11월30일(월) 하오5시. 서울공연 합창단원 모집마감
연락처: 536-1166(한인Y 합창단)

◇12월2일(수) 하오7시 한인회관 이전문제공청회
곳: 한인회관(20 Mobile Dr)
연락처: 755-9288

◇12월4일(금) 하오7시 이화여고동창 성탄 송년파티
곳: Don Valley Holiday Inn(1250 Eglinton Ave. E.)
연락처: 494-4906(송민자)
293-4949(송현덕)

◇12월4일(금) 하오8시 메시야 대연주회(한인합창단)
곳: Massey Hall(178 Victoria)
연락처: 222-4662(Mrs. 김)

◇12월5일(토) 하오7시. 연 고대 성탄·송년파티
곳: 뉴-서울
연락처: 연대494-2309(심홍)
고대 444-9755(조병역)

◇12월5일(토) 하오7시. 동국인의 밤
곳: Ramada Inn(185 Yorkland Blvd.)
연락처: 884-8052(Mrs. 정)

◇12월 6 일(일) 하오6시. 칼빈신학교 졸업식
곳: 갈보리교회(3817 Lawrence Ave. E.)
연락처: 977-5202

◇12월 6 일(일) 하오2시. 에덴침례교회 창립2주년예배
곳: 에덴침례교회본당(1272 Weston Rd.)
연락처: 665-2866

◇12월 6 일(일) 하오3시30분. 조성호무역관장강연회
제 목: "한·카간 교역및 통상의 현황"
곳: 천주교 St. Paul성당강당
연락처: 863-0415(천주교노인회)

<여행사와 항공요금 그 실태>⑥
KAL, 자국인 푸대접
"이용자 적어 비싸다"는 전語不成說

"여행자가 많아야 항공요금이 싸진다는 말(※<한국일보> 11월10일자 제5분)은 박리다매(이익을 적게 보면서 많이 팜)원칙에서 볼 때 당연한 논리로보인다. 한국방문 캐나다 교포 여행자들이 홍콩가는 중국인 여행자보다 숫적으로 적기 때문에 서울까지의 비행기 요금이 더 멀리있는 홍콩행의 요금보다비싼 것은 얼핏 보면 일리가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KAL기를 탑승해 본 승객 들은 한국인이 역시 대종을 이루는 걸을 알 것이다. 많은 수의 한국인이 몇 안되는 중국인이나 외국인 승객을 위해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나?

대한항공은 미국에 10개, 캐나다에 2개의 지점(토론토및 뱅쿠버)을 두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북미소재 12개 지점중 토론토지점의 판매실적은 교포수가 토론토보다 훨씬 많은 시카고나 샌프란시스코와 비슷, 3~4위를 마크한다. 물론 화물운송 수입도 많다. 때로는 샌프란시스코를 훨씬 앞지르기도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토론토—서울간 요금은 비쌀 수 밖에 없다"는 논리는 용납되기 어렵다.

KAL은 외국인 에게는 제일 값싼 비행기로 인식된다.

필리핀·에어라인의 샌프란시스코—괌도 경유 토론토—마닐라 왕복요금 은 1,448달러이다. 그런데 서울서 갈아타는 KAL 의 필리핀행 요금은·이보다1백여달러가 적은 1,332 달러이다.

홍콩의 경우, CP(캐네디안·패시픽)는 $1,380, 싱가폴·에어라인은$1,350인데 KAL은 제일 싸서 $1,310이다.

KAL은 손님 유치작전상 외국에서나 외국인에는 요금을 저렴하게, 반면 여기서 오는 손해를 자국인에게서 메우는 식의 정책을 써왔다.

한국에서 표를 사서 외국여행을 하는 경우, 같은 거리라도 외국에서 사는것보다 훨씬 비싸다.

흔히들 방문자에게는 요금이 비싸고, 한국에서 사는 것이 이곳보다 비싸다고 인식한다.

방문자에 대한 요금차별은 이미 79년초에 한·미 두 정부가 할인요금정책에 합의, 일률적으로 약 25% 디스카운트요금이 책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민자나 유학생들의 특별혜택은 없다.

그러나 25%의 디스카운트는 북미의 서해안도시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뱅쿠버)까지의 요금에만 해당되고 이곳에서 적용되는 약 50%이상의 단체요금보다는 훨씬 비싸다.

다만 이곳에서 사는 것이 싸다는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 입국관리들이 방문자들에게 왕복항공표를 요구한데서 시작됐다.

이곳 여행사에서 끊는한국에 있는 방문자를 위한 항공표는 서울→토론토, 토론토→서울 두개의 항공표를 끊는 것이다. 결국서울→토론토 요금은 한국에서나 이곳에서나 똑같다.

(※ 항공요금에서 여행자의 출발지와 표를 끊는 장소가 다르고, 요금이 다를 경우 비싼 쪽을 적용한다.)

이와같은 항공요금의 혼란은 한국정부에 일단의책임이 있다.

한국정부는 KAL의 보호목적으로 외국 항공사들의 한국내에서의 덤핑도 규제, 한국인들은 심한 경우에는 덤핑요금의 2배이상의 정규요금을 물어왔다.

발전도상의 한국은 선진발전국인 캐나다, 미국과 비교해볼 때 개인당 평균수입, 가처분 소득등 에서 훨씬 떨어진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더비싼 요금을 물어야 외국여행이 가능하다.

이와같은 자국기 보호책은 어느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다. 태국, 필리핀 등은 한국보다 생활수준은떨어지나 항공요금 규제는없어 미국에 오는 동남아 출신 여행자들은 한국인들보다 항상 싼값을 지불해 왔다.

KAL이 세계적 항공사로 부상한 현재까지 이같은 내국인 차별대우를 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때가 왔다.

결국 한국인들은 외국에 있건, 국내에 있건 KAL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온 것이다.

특히 판매실적이 좋은토론토의 경우 한국왕복요금은 2~3백달러씩 내려도 좋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KAL의 요금이 내릴경우 CP요금도 따라 내릴 것이다.

최소한 중국인시장에 적용되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을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차회끝〕

토론토발행인: 김 명 규
편 집 인: 이 석 현
광 고 부 장: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윤 방 현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 앙 콜 쇼 ◆◆◆◆

지난 제1차 밍크쇼에 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앙콜쇼를 다시 갖게 된 이유는 교민들의 **재청**에 의해서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교민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품목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중순에 앙콜쇼를 다시 가질 예정입니다.

품 목:
● **모피제품**(밍크, 친칠라, 링스, 무스, 라쿤, 각종FOX, 비버, 양털코트, 물쎄무코트, 런던 FOG바바리코트)
● 모든 남, 녀 겨울용 코트 다량준비
● **보 석**(다이야몬드, 에메랄드, 루비, 싸파이어, 진주, 비취, 오팔 등) 투자용 다이야 몬드, 각종보석 다량구비. 반지 개조하고 원하시는 모양대로 해드립니다.
● **고급시계류**: 파격적인 가격으로 세일합니다.

이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백화점
미도파 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M5S

행낭실린 조종실은

15분간 비어있었다

알라스카 급유당시, KAL기 귀중화물 탁송에 헛점노출

◇… 현금 2백만달러 행낭 5개를 뉴욕에서 서울로 싣고가던 KAL점보 화물기…◇
◇…(097기)는 지난 11일 중간급유를 위해 알라스카의 페어뱅크에 기착, 조종사…◇
◇…임무교대당시 약15분간 기내조종사석을 비운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현금…◇
◇…2백만달러가 뉴욕에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알라스카 중간급유때 바꿔치기되…◇
◇…었는지등의 미국내분실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FBI가 수사중이지만 중요화물…◇
◇…의 수송과정에 있어 KAL측에 헛점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페어뱅크 공항서 조종팀 교대
"현금행낭 잘지키라" 여러번 부탁
"미국서 없어진게 아니냐"에 중점수사

2백만달러의 현금행낭을 수송한 대한항공 747 점보기는 지난 11일 뉴욕케네디공항을 떠나 이날 새벽 4시28분 알라스카 페어뱅크공항에 급유를 위해 기착, 총57분간 머물렀다.

어어 새벽 5시35분에 출발한 이화물기는 페어뱅크에서 급유중 2백만달러 행낭이 실린 조종실에는 약15분간의 공백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페어뱅크 KAL사무소 관계자에 의해 밝혀졌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이화물기의 조종실은 뉴욕-페어뱅크를 운항한 조종팀 3명과 페어뱅크-서울간을 운항할 조종팀 4명이 교대한 약15분간은 기내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순간 『이화물기의 트랩밑에는 공항 경찰관 1명이 경비했으며 이 공백시간에 음식공급을 위한 「캐터링서비스」가 일을 한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기내에서 캐터링서비스를 했었던 페어뱅크 공항의 에어로·앤터프라이즈(Aero Enterprise)회사의 캄·헤건비씨도 25일 하오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기내에 들어갔을때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행기 도착후 승무원을 위한 음식 및 음료수를 채우기 위해 두차례나 기내에 출입했었으며 이때 머문시간은 약10분으로 기억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금행낭에 대해서는 『당시 기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기체밖 10야드 정도거리에 공항경비경찰1명이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페어뱅크 KAL 사무소 정비사 강운충씨는 당시 타랍밑에서는, 경찰이 계속 경호하고 있었으며 조종사들의 음식을 위해 캐터링서비스가 일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새 조종팀이 교대임무를 인계 받은것은 비행기 도착후 30분후 였다고 밝힌 강씨는 자신이 최기장으로부터 현금 행낭5뭉치 인수받고 나중에 올라온 임동선기장에게 서명받고 인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5개의 행낭이 조종석뒷편 칸막이 옆 비상구옆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기장으로 부터 현금행낭을 잘 간수하라는 부탁을 여러번 받았다』고 밝힌 강씨는 『예전에는 보통 현금포대가 한뭉치로 왔었는데 최근들어 여러뭉치로 와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뉴욕에서 화물기를 조종해온 KAL조종팀은 최정만기장, 박진호부기장, 주삼득기관사 였으며 서울로간 팀은 기장 임동선, 오승환씨, 신승보부기장, 이무경기관사팀이다.

또한 화물기가 도착했을때 평상대로 공항경찰이 타랍밑에서 이륙시 까지 경호하고 있으며 당시 화물기에 접근한 사람은 교대 승무원, 공항정비사, 급유정비사, 캐터링서비스 뿐인것으로 알려졌다.

페어뱅크 KAL 사무소의 김찬기운송담당관은 25일 『우리는 사건발생 며칠후 뉴욕으로 부터 사건내용을 통보 받았다』면서 『FBI가 지난 20일 전직원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 질문을 했다』고 밝히고 그는 『이같은 사건은 항공기 운항도중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면서 현금행낭이 KAL에 오기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대 샘·닐(Sam Neal) 담당관은 25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FBI로 부터 참고사항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는 당시 경비상황보고서 일체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당시 KAL 화물기를 경비한 담당자는 서전트·데일·건(Sgt. DALE GUNN)이라고 밝힌 샘·닐은 『담당자가 경비하고 있는 동안 인가된 사람이외는 기내 출입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產을 위협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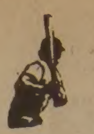
"$200만 상당으로 기재된 화물"로 접수
KAL케네디空港 사무실측 설명

(뉴욕지사) 한국 외환은행 본점으로 수송된 2백만달러의 현금 증발사건에 대해 미연방수사국(FBI) 뉴욕지부의 조브래니너대변인은 25일 『이미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케네디공항에 위치한 KAL 화물사무소의 김한승 화물과장은 『지난 11일 리퍼블릭·내셔널뱅크로 부터 세관신고가격 2백만달러 상당으로 기재된 화물로 기탁 받았다』면서 『보통 현금은 취급치 않으나 이경우 현금을 화물로 간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KAL은 매주4회(화, 수, 목, 토) 화물기를 뉴욕-서울간을 취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봉함이 된 화물의 내용은 확인할 수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운송책임을 맡은 회사에서 운반되어온 현금 행낭은 봉합이 되어 있어 안전조치와 함께 적재 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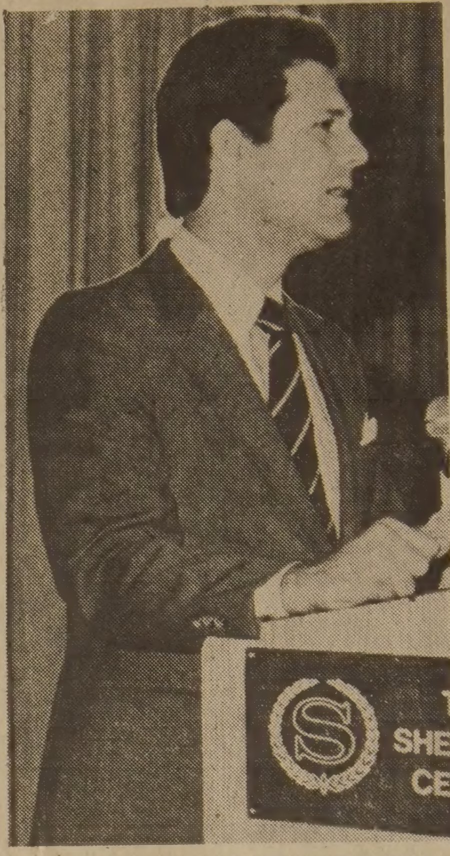


<스포츠 단상>

바바시 사장의 은퇴

블루제이스 경영진의 혼란

"신이 세상을 창조 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아침 사임을 발표했다."



◇구단주들의 충분한 재정지원을 못받자 미련없이 지난 5년간 키워왔던 블루제이스를 떠난다고 23일 발표하는 피터·바바시 사장.

<그로브 앤드 메일>의알렌이 블루제이스의 피터·바바시 사장의 은퇴를 인용한 말이다.

지난 77년 블루제이스호를 출범시킨 바바시 사장은 "이제 흥분의 단계는 지났다. 새로운 도전을 모색해야겠다"며 지난 24일 토론토 야구팬들과의 작별을 고했다.

탄생후 5시즌을 프로야구 어메리칸리그 최하위를 못벗어났던 블루제이스 는 바바시 사장의 은퇴로 또 하나의 시련을 맞게 됐다.

흔히들 사장하면 모든경영권을 갖고 있고, 블루제이스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블루제이스의 경우, 라밧트맥주회사가45% 몬트리얼의 백만장자 웹스터가 45%, CIBC은행이 10%의 주식을 갖고 있다.

바바시의 경우 단순히피고용 사장에 불과했다.

바바시는 친한 친구 스러거 래기·랙슨을 몇년전 블루제이스 회장·웹스터에 소개, "5백만달러로 계약을 체결,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게 됐다"하자, 웹스터는 침묵을 지켰다.

잠시후 회장실에 다시불려간 바바시는 "도대체 정신 있어? 바바시"하는 웹스터 회장말에 "아냐, 농담였어"라고 하자, "다시는 이런 식으로 놀라게 하지마"했다.

금년도 다시 양키스에서 후리·에이전트 선언을 하고 나온 레기·잭슨은 토론토에 의해 지명됐다. 그러나 실질적 경영주 들인 웹스터나 라밧트 맥주회사는 아무 지원도 안했다.

필자가 바바시를 처음만난 것은 지난9월초 익스비선스타디엄 기자실 뒤에 있는 식당에서였다. 이미 최동원과 계약을 체결, 발표를 보류하고 있을 때 였다. <그로브 앤드 메일>의 폴이 바바시에게 "한국일보의 유기자야"하고 소개하자, 곧 음식을 들고 내 테이블로 왔다. 처음에는 그냥 간부정도인 줄 알고 한국야구나 북미야구에 대한 이야기 저얘기를 나누었다.

바바시가 떠난 후 내가 폴에게 "저 사람 블루제이스에서 위치가 무어야?" 하자, "바로 사장야"했다.

아, 여기가 캐나다지 하고 생각을 바로잡았다.

아직 40세도 못된 바바시는 일생을 야구로 보냈다. 캘리포니아·앤젤스부찌·바바시의 아들인 바바시는 프로야구 일선에 행정가로 뛰어들었다. 블루제이스에 오기 전에는 샌디아고팀의 부사장으로 있었다.

은퇴후 대학강사나 야구컨설턴트로 일하겠다는 바바시는 지금도 몇팀으로부터 사장취임을 교섭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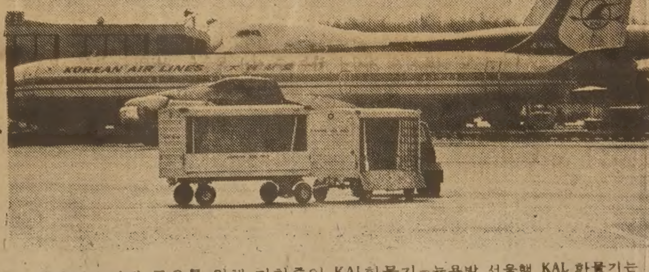
이제 젊은 보비·콕스감독을 맞아 진용을 재정비하려던 블루제이스는 바바시 사장의 손실로 다시 한번 시련을 맞게 됐다.

레기·잭슨을 블루제이스로 끌어오려는 실무진들의 노력은 구단주의 회피로 물거품이 될 것같다.

(유승민 기자)

"$2백만를 찾아라"

뉴욕→서울외환은행본점: 국제네다바이 전모



◆알라스카에 급유를 위해 기착중인 KAL화물기―뉴욕발 서울행 KAL 화물기는 반드시 급유를 위해 알라스카 페어뱅크 공항에 기착한다. 2백만달러를 수송한 KAL 747 화물기는 지난 11일 당시 페어뱅크 공항에서 총57분간 머물렀으며 이중 15분간의 조종실 공백시간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알라스카에서 급유받고 있는 KAL의 DC-10기.

뉴욕서 한국외환은행으로 송금중 없어진 2백만달러증발사건은 25일 전모가 밝혀지면서 뒤늦게 숨가쁜 국제 네다바이사건으로 부각됐다.

서울의 매스컴이 이사건을 보도한데 이어 AP, UPI 등 세계 4대통신이 이사실을 전세계에 타전했고 아침을 맞은 미국에서는 CBS방송이 첫보도한데, 이어 모든 방송이 뒤따라 보도 국제적인 토픽뉴스로 등장했다.

첫발견 외환부 …아연실색
뜯는순간 빳빳한 백지가

FBI는 미국에서 본격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혀 수사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007영화처럼 치밀하게 준비되고 완벽하게 연출된 범행과 세계최고의 민완수사력을 자랑하는 FBI와의 대결이 마치 드릴물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2백만달러를 가로챈 범인들은 과연 누구일까.

경 위

미국은행이 외환은행으로 항공탁송한 미화 2백만달러가 백지뭉치로 바뀐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12일 상오11시45분 외환은행본점 외환부 응접실이었다. 탁송행낭의 납봉을 개봉하자 달러대신 빳빳한 백지다발이 나온것. 아연실색한 정윤준외환부장은 이순간 나머지 4개의 행낭개봉 작업을 중단시키고 이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은행측은 송금을 의뢰한 리퍼블릭 내셔널뱅크(RNB) 홍콩사무소에 연락하고 치안본부를 통해 관할 서울중부경찰서의 입회를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RNB홍콩주재부사장 K·앤더슨씨가 13일 하오4시30분 내한하자 하오8시 서울중부경찰서 김정채경비계장, 보험회사 로이드 런던의 한국대리자인 협성해운 검기학검정부장, 대한항공 공항화물지점 박상방파장등과 함께 나머지 4개도 개봉, 모두 가짜임을 확인했다.

현 금

미화는 RNB(뉴욕 맨하탄 5번가 452)가 새벽2시 1백달러짜리로 된 1만달러 묶음 2백뭉치를 5개의 행낭에 40뭉치씩 나누어 넣어 뉴욕케네디공항에서 KAL 보잉747 점보화물기편으로 탁송한 것으로 김포공항을 거쳐 12일 상오 외환은행본점에 도착했다.

행낭은 폭2센티미터, 길이 5센티미터, 두께 5미리미터 크기의 납봉으로 묶여져 있는데 속에든 가짜지폐는 다발로 묶지 않고 쌓기만 한채 상하에 베니어판을 대고 고정시켰다.

행낭무게는 진짜 23kg보다 가벼운 21kg였다. 가짜돈 백지는 달러보다 약간 두꺼운 지질이었다.

수송작전

현금수송은 국제관계로 극비사항이었다. 바이노귤러 오퍼레이션(망원경작전)이란 암호명이 붙여져 관계자들 간에 암호로된 전문이 오가면서 약속됐고 안전을 위해 「돈」을 관계자들 사이에 코핀(관)으로 호칭된다.

이돈은 출발 10분전인 지난11일 상오2시 무장호송원 3명에 의해 케네디공항에 실려가 KAL 907편 점보화물기(기장 최정만씨(47))에게 인계돼 조종실 기장석에 실렸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카다피, 요인 암살계획

리비아기 피격이후 암살단 조직

(뉴욕=UPI) 리비아 대통령 모아마르·카다피는 레이건 대통령, 부쉬 부통령, 헤이그 국무장관, 와인버거 국방장관등 미국의 주요지도자들을 암살하기 위한 「특별암살단」을 준비해 두고 있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22일 발행한 11월30일자 최신호에서 말했다.

레이건 행정부 고위소식통을 인용하면서 <뉴스위크>지는 이같은 리비아의 암살계획이 알려진 후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한 미고위지도자들에 대한 경호가 크게 강화돼 왔다고 말했다.

이 시사주간지는 카다피 대통령이 지난 8월 지중해 시드라만에서 2대의 리비아공군기가 미군기에 의해, 격추당한 후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해야겠다』고 처음 발설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특별암살단은 바주카포, 수류탄 발사기, 휴대용 대공미사일 SA-7등으로 장비돼 있다고 이 시사주간지는 말하면서 이 암살단이 미국에 입국하지는못했지만 카다피는 미국내에 상당한 첩자를 두고 있어, 미국은 특별경계를 펴왔다고 말했다.

◁실협선거 낙수▷

◇투표에서 개표까지를 진행했던 선관위원들의 동작도 능수능란, 완벽을 기했다. 나중 투표수와 기표수등을 맞추었을 때 단 한번에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젊은 20대 회원들이 더러 눈에 띄어 세대교체를 실감. 20대 아가씨 들로부터 40대 아주머니까지 20여명 여성회원도 1표의권리를 행사.

◇이번 선거로 한국인의민주주의 역량이 과시되었다는 것이 중론. 한쪽에서는 이미 식사가 시작됐고, 근두시간이나 기다렸으나 대부분이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 질서유지하러 나왔던 경찰들은 농담이나 하고 딴청이나 부릴 수 밖에.

물론 옥의 티는 있었다. 2명의 유권자가 접수번호를 잃어 백지로 대신해야 했고, 기표할 때 지정된곳에 하지 않고 이름 위에공표를 하거나 다른 후보란에 ○표를 했다가 ⊗를 하고, 다른 후보에게 던지는 등 무효표가 6장이나 나왔다.

또 접수는 했으나 기다리기가 지루해 돌아간 회원도 14명이나 됐다. (접수된 회원 374명, 투표자수 360명)

12시20분까지 진행된 총회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40여명. 이 사람들이 바로 협회의 중심인물들.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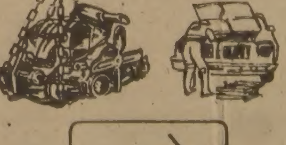
도넛샵:
①주매상 $6,500, 렌트 $3,000, 5년+15년 옵션, 가격 : $26만 달러
②주매상 $5,500, 렌트 $2,300, 3년+10년 옵션 가격 : 18만9천
③주매상 $4,500, 렌트 $1,060, 8년+10년 옵션 가격 : 18만5천

주유소및 가게
①농에이커 땅에 가옥포함, 코너땅에 도넛샵 자리로 최적, $8만 다운, 가격 : 30만달러
②년매상100만달러이상, 2농에이커땅에 가옥포함 년수입 : 8만달러, 8만달러 다운, 가격 : 35만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5,500, 주매상 : $7,000,
주매상 : $8,000 되는 버라이어티스토아, 기타가게 달린집, MALL안에 있는 가게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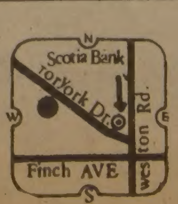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WANIN TAEKWON-DO
THE LEADING STYLE IN THE ART AND SCIENCE OF TAEKWON-DO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무도진수와 지도권위로
1. 고상한 인격도야와 신체단련을 시킨다
2. 강한 개성의 확립과 신념의 인간을 만든다
3. 위기를 무난으로 피하는 자기능력을 키워준다
4. 문제아 선도및 학업능률을 향상시킨다

※한국인 자녀를 특별할인우대·한국인사범 직접지도

KYONG LEE TAEKWON-DO CENTRE
H.Q.: 61' YONGE ST., at Isabella, Toronto (416) 929-5511
NORTH: 2281 YONGE ST., at Eglinton, Toronto (416) 483-4002
EAST: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Scar (416) 759-2500
OVER ALL CALL: (416) 962-3000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노년회 교양강좌> ②

어버이·자녀간의 거리

노부모와 며느리·사위문제 해부

김보경(심리학자, 철학박사)

1. 부부간의 문제

여가는 창조의 어머니라 하는 말이 있다. 물질적기초가 얼마간 안정되면 부부는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정하여 보다 창조적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2. 부모와 자녀문제

생활안정이라는 급박한 문제때문에 부모는 새 사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정신적으로 성장해 지기보단 오히려 퇴보해 지기 쉽다. 부부가 직장에 가거나 스토어같은 개인사업 경영은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접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한다. 이러한 가정내의 현상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적, 교육적, 지도적 기능을 상실케 하고, 단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보면 밥과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조건으로자기를 간섭하고 처벌하는사람으로 보기가 쉽다.

부모자신의 의욕좌절, 갈등, 분노감, 그리고 육체적 피로감등은 섭사리자녀들에 대하는 태도에서저도 모르게 반영된다. 가정에서 애정내지 소속감을경험하기 어려운, 너무나 바쁜 부모를 가진 청소년들이 쉽게 나쁜 동무들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는 두고라도 이민가정의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의하여 부모를 등지게 되기 쉽다.

첫째, 새로운 민주적 가치관, 습관, 행동방식을학교에서 배우는 자녀들은부모가 강요하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행동, 예를 들어, 권위에 대한 절대적 복종등이 자기들의새 사회에서는 진출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부모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려하지 않는다.

둘째, 사람은 쉽사리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을 본보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록 부모라 할 지라도 새 사회에서 볼 때 열등한 인종적 계급에 있고, 열등한 사회적 지위, 또는 열등한 직업적 계열에 있게 될 때 부모를 자기도모르게 부인하려는 경향이생기며,

세째, 동양이 의존성을 강조하는데 비해 서양은독립성을 강조하므로 언제나 자녀들을 자기 보호 아래 넣어두려는 부모들을,자녀들은 자기독립, 자기 성숙을 저해하는 대상으로 보고 이에서 뛰쳐나가려는현상을 보이게 된다.

한국부모들은 많이 벌어!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산을 남김으로써 자녀에 대한의무를 한다고도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가던져 준 수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 사회이고 보면 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돈?)을 마다하고 거지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독립하려는지 이해가 되기도 한다.

물론 부모와 자녀간의갈등문제는 이민가정의 전용물은 아니다. 이민 가정이 아닌 한국사회나 캐나다본사회의 가정에 있어서도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있으나 이민가정은 그 이민, 또는 문화의 급차에서 오는 특수성 때문에 그 문제가 더 긴박할 수 있다. 부모와자녀간 갈등문제는 부모가자녀를 억지로라도 자기들의 태도에 일치하도록 강요하기보단 부모자신들이 새사회를 이해하고, 비록 한국적인 것이라도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것은 고쳐가는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다.

실은 동양것과 서양것이 사사건건 반대되는것만도 아니요, 형식이나 표현 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젓가락과 삼지창(포커)은 모양에 있어서 다르지만 음식을 먹을 때 쓰는 도구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불고기와 스테익은 요리법이 다르지만 먹는 것이라는 점에는 다를바가 없을 뿐 아니라,우리들의 위에 들어가면 한국것 서양것 구별 없이 우리몸에 좋도록만 소화시킨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양것 동양것을 단지 피상적면에서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양이나 형식너머 있는 본질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보다 좋은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배제하기도 하여야 하겠다.

우리들이 이와같이 보다 고차적인 차원에서 문화적 차이, 또는 공통점을이해한다면 소위 가치관의차이에서 오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 될 것이다.

우리들이 만약 동양것, 한국것의 근본을 알고 있다면 서양것의 근본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보아도 좋겠다. 이는 마치 어떤학문이라도 한 학문만 정통하면 그 근본에 가서는 어떤 상이한 학문과도 상통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때로 동양의 윈리, 동양의 윤리등등 하면, 서 서양것을 배척하기도하지만 깊은 경지에서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동양것도 아니며, 우리가 배척하는 것이 또한 서양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 서양의 정신적 기조가 그리스도교 성서에 있고, 또 그리스도교가 아시아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물질주의가 서양의 것만도 아니요, 인간차별주의가 동양의 것만도아닌 것을 생각해볼 필요 가 있다.

3. 노부모와 아들, 며느리 또는 딸, 사위문제

대체 노부모들은 젊은부부가 미리 새나라에 와서 정착한 뒤에 초청되어 오기 마련이다. 자녀들이 노부모님들을 초청할 때의이유는 각양각색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곳에 오셨던 노인들이 당하는 심리적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젊은 사람과는 달리, 물질적 문제라기보다 주로심리적인 것이라 보겠다. 노인들이 당하는 심리적 고통을 다음 몇가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오랫동안의 분리된 생활에서 오는 격리감이 계속된다. 부모와 자식간뿐아니라, 부부라 할 지라도 몇년간 결별되어 있다가 다시 함께 생활하 게 될 때는 적응하기가 어렵게 된다.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어딘가 서먹서먹 한 것은 피할 수 없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긴장된 상태가 몇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 어린아이일수록 결별의 영향은더욱 커서 한두달동안의 부모와의 이별이 평생을 두고 다시는 부모와 애정적으로 재합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몇해만의 부친, 모친상봉이 몹시 반가운 것이지만 그후 한 달 두달 일년 이년을 지내가면서 상호 어딘가 서먹서먹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자식며느리측에서는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러한 느낌으로 인하여부모를 회피하려는 행동의경향도 보이게 된다.

둘째는, 가정내의 위치와 영향력의 변동이다. 노부모는 어른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자식을 찾아오지만 불원간 이러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 젊은 부부와 그 자녀들로 단원을 이루었던 이민가정에 노부모가 들어올 때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압박감을 아들, 며느리가 의식하게 된다. 젊은 부부는 자연히 그들의 행동이나 언어에 조심하게 되고, 그조심이 계속되면 짜증스럽게 된다.

한국에 있을때는 모든표준이 노부모를 중심했으나 이민가정에 있어서는 표준이 이중적인 것이 되므로 그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결국은 캐나다생활에 더 경험있는 젊은 부부중심이 될 수 밖에 없고, 노부모의 영향력, 지도력은 점차로 무시된다.

노부모의 권위나 결정권을 옹호해 줄 다른 가족성원이 없고, 단지 아들 며느리의 효심 내지 의무감에 밖에 의지할 수 없는상황에 처할 때 노부모들은 소원감 내지 격리감을 맛보게 된다. 이것이 노부모들의 분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세째는 익숙지 못한 생활환경에서 오는 문제이다. 언어나 생활풍습에 익숙지 못한 노부모들은 행동에부자유를 느끼게 되고,또 이와 더불어 일거일동이 불안해 진다.

(계속)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⑨⑨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까이 오고있는 그 위험한 사람은 일킬릴의 습격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낯선 사람의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듣고 안심했기 때문이다. "나는 바른쪽에 있는 산에서 바른쪽으로 오는 중이요" 그들중의 몇사람은 겨울이 접어들자 갑자기 없어진 가꾸미의 목소리임을 아 차릴 수 있었다. 카쿠트는 가꾸미가 없어졌을때 그의 토른락(귀신)이 밤중에 찾아와서 가꾸미를 생명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속으로 데려가 버렸다고말하는 것서 들었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가꾸미의 목소리를 듣고 모두 두려워 했으며 높은 강뚝에 모여서 그가 오고있는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긴장에 싸여 서로 바짝 붙어있었다. 그들이 모두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한 사람이 속삭였다.

이노! 한 귀신이 강위로 오고있어! 그 사람의죽은 귀신이다. 어쩌면좋지?

가꾸미는 무장한 사람들의 한무더기를 보자 소리질렀다. "아이이! 강뚝에 있는 사람들아 가꾸미가돌아오는거요! 나는 카부루나이트의 땅에서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갖고 돌아왔소!"

이때야말로 그에게는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이루 말할수 없이 무서운 긴 여행을 감행해온 그는 옛날 카누를 타고와서 방문했던 그 백인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싣고 돌아왔던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소리질러봤지만 한덩어리로 뭉쳐있는 사람들은 가꾸미의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에 응답이 없었다.

여인들은 누기 시작한이글루의 벽 틈바구니로 수상스럽게 내다보았다.

허스키들도(에스키모 개들) 목구멍속에서 나는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밖으로 모두 나와 서있었다. 왜냐하면 이들도 인디안개들의 이상한 냄새를 맡고 역시 경계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카쿠트도 동떨어져 있는 그의 이글루에서 나왔다. 샤만인 카쿠트는 그때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캠프에 있는 어떤 노인들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는 강뚝에 서서 이제 강변에서 이삼백야드까지 가까이 와서 멈춰있는 자기 동생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드디어 그는 낭떠러지위에서 내려다 보고 서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것을 꾸짖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은 동생의 귀신이 아니고 바로 내동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리버 오브 맨에 귀신이 개를 몰고 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소?

그러자 긴장이 곧 풀렸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이글루밖으로 쏟아져나와 눈위에 깔려있는 죽은 이끼에 채이며 그쪽으로 몰려갔다. 온캠프에 다시 생기가 돌자 개들이 길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가꾸미가 호숫가에 까지 접근하자 여나무명이 뛰어내려가 개들을 풀어 주었고가꾸미는 앞으로 걸어나와 형 카쿠트와 정중 하게 코를 서로 맞대고 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사진에서 돌아온 그의 주위로 몰려 왔고 또 그가 가져온 긴 썰매에 가죽덮개로 씌워 놓은 물건들을 호기심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가죽에 덮여있는 끈을 모두 잘라버렸다. 이것은 그가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썰매에 실려있는 굉장한물건들을 들여다 볼때 감탄을 금치못해 하는 소리가 가꾸미의 귀에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랐다. 다섯자루의 총, 한 케이스의 화약, 한 박스의 납실탄, 샷건 한 자루, 홍차 세케이스, 밀가루 몇푸대, 소금과 설탕 여러벌의 옷, 손도끼 몇개,

눈써는 칼들 그리고 주전자들이었는데 이것은 아직도 짐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이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고 도대체 한사람이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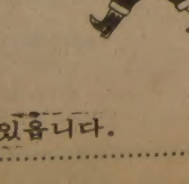
(계속)

서울 사대부고 망년회 파티

한해를 보내는 문턱에 서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못다한 일은 태산 같기만 합니다. 몽땅 새해로 미루고 하루저녁 그리운 동문들과 함께 해 묵은 사연을 나눌 모임이 마련되었읍니다. 다채로운 여흥순서를 마련했사오니 동문제위께서는 두루 연락하셔서 성황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1년 12월 26일(토) 오후6시
장 소 : 프린스 호텔1층 "프린세스룸"
회 비 : $40.00(커플), $25.00(싱글)
※COCKTAIL, 복권추첨, 여흥순서
연락처 : 백 이 삼−251−6578
김 강 욱−298−4232
송 광 호−533−2364



● 복권추첨을 위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서울 사대부고 동창회장 백 이 삼

제 1 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

금번 한인볼링협회는 제1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를 아래와 같이 가지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 198 1년12월12일(토)오후12 : 30
장소 : PLAYTIME BOWL LTD(33 SAMOR RD
종목 : 부부전(혼합식) 참가비 $7—
단체전(3인1조) 참가비 $20—
개인전(남, 녀) 참가비 $7—
시상 : 개인전−챔피언(애뉴얼트로피)
남 1, 2, 3, 4, 5등, 여 1, 2, 3등
핸디캡−남, 녀 1, 2, 3 등
부부전−챔피언(애뉴얼트로피)1, 2, 3등
단체전−우승, 준우승
하이싱글및 장려상−남, 녀 1명
부상 : 개인전 챔피언−제니스 흑백TV
(아카데미TV사 김정운 제공)
여자 1등−무료파−마권(헬렌미용실 이승자 제공)
부부전 챔피언−범랑 김치통셋 (미도파백화점 장추신제공)
핸디캡 남1등−국보쌀(한국식품 서부서춘원)
핸디캡 녀1등−장미쌀(한국식품서부)
※본시상은 12월19일 송년잔치 장소에서 있겠읍니다.
전화 : 759−8228(Mr, 장), 622−0224(Mr, 오)

크리스마스및 송년잔치

한인볼링협회는 회원및 교민의 크리스마스겸 송년잔치를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일시 : 1981년12월19일(토)저녁7시30분~새벽1시
장소 : ALBION 커뮤니티 센터(1485 ALBION RD & KIPLING AVE.)
회비 : 커플 $30— 싱글 $20—(식사, 주류, 드링크 포함)
회원권판매 : PLAYTIME볼링장에서 매주 일요일 하오6~9시, 한국식품서부
파티 프로그램
● 시상식(제1회 코리언컵 볼링대회)
● 행운경품 추첨
벽시계(영리무역 이영현 제공)
카 스테레오(HI−FI HOUSE 박명호)
액자(H&S PICTUR FRAME조성호제공)
라면 1상자(한국식품서부지점 서춘원)
샘표간장(한국식품서부지점 서춘원)
● 노래와 경음악(4인조밴드 출연)
● 댄스파티
전화 : 759−8228(Mr, 장), 622−0224(Mr, 오)

주최: 재카나다 한인볼링협회 후원: 한국일보사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감매수리
번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98個國에 「코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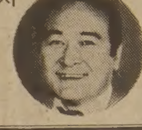
共産圈 제외한 在外國民 百59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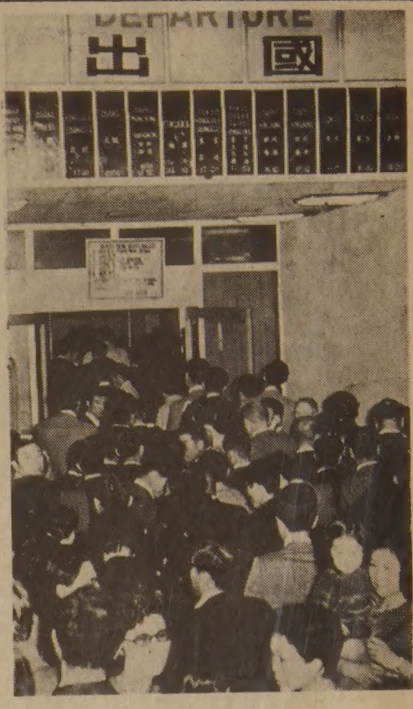
年12萬명線 늘어나

3~4年 후면 2百萬명 넘어설듯

「뿌리」잃지않는 僑民政策있어야

뉴스診斷 政治部 金勝雄기자





◇在外국민수가 매년 12만명線으로 늘고있다。서울·올림픽이 열리는 88년이되면 在外국민수는 2백50만線으로 불어날 전망이다。이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민대책이 마련돼야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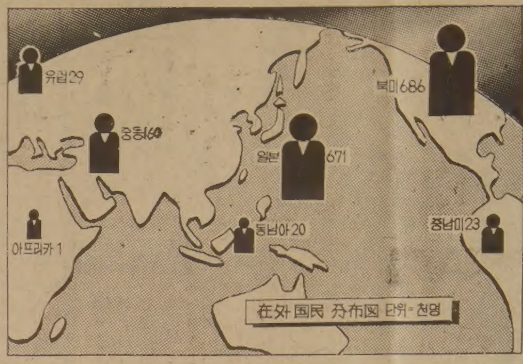
國力의 신장과함께 在外교민수가 계속늘어 1백60만명선에 육박하고있다。외무부가 해외 공관보고를 바탕으로 조사한 81년 在외교민현황에 따르면 금년6월말 현재해외에 살고있는 우리나라 교민수는 98개국에 걸쳐 1백59만8백53명에 이르고있다。

재외교민수가 1백만대를 돌파한것이 76년。불과 5년만에 60만명이 늘어난 셈이다。이런 추세로 가면 3~4년후면 2백만명線。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88년이 되면 2백50만명線을 넘을 것이란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숫자는 그러나 공산권에 살고있는 우리동포를 포함하지 않고있다。외무부의 잠정추계에 의하면 공산권지역교민수는 中共에 약2백20만명、소련에 약40만명이 살고있는것으로 나타나있다。

따라서 금년현재 4백20만명의 「한국人」이 해외에살고있다고 봐야한다。南韓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숫자다。우리주위에 살고있는 아홉사람 가운데 1명꼴이 현재 외국에 살고있다고 보면된다。

여기서 말하는 在外교민수엔 단기여행자는 포함돼 있지않다。따라서 해외여행자유화이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海外여행객을 염두에 둘때、특히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될 85년이후가 되면 평균8명당 1명꼴이 항상 바다건너에 가있는 셈이된다。



◇지역별 교민분포 현황
(81·6·30현재)

지 역	1980	1981	증 감
일본	665,023	670,890	+5,867
동남아	15,445	19,817	+4,372
북미	609,734	685,981	+76,247
중남미	21,714	22,832	+1,118
구주	32,363	29,214	−3,149
중동	125,194	160,893	+35,699
아프리카	1,443	1,226	−217
계	1,470,916	1,590,853	+119,937

北美·아세안地域에 急增
建設진출·資源개발 반영

금년도 재외교민센서스엔 몇가지 特記해둘 사항이 있다。在外교민하면 으레 이웃 일본에 사는 在日거류민을 연상하기 쉽고 그 숫자역시 80년6월 현재의 경우 여타지역보다 훨씬많은 66만5천명을 기록했다。北美지역의 교민보다 5만5천여명이 많았다。그러나 금년을 깃점으로 이 서열이 뒤바뀐것이다。

금년도 집계결과 北美지역의교민수가 68만6천명선을 기록、일본의 67만명대를 1만5천명앞지른 것이다。

또 東南亞지역의 교민이 현격하게 는데 반해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의 교민수가 표나게 준 점이다。中東지역의 교민수가 해마다 는것은 이지역이 우리 건설·기술의 집중타기트가 돼온 점에서 별다른 이유가 없겠으나 東南亞지역이 올해의 경우 4천3백여명이 는것은 일단 刮目할만한 변화가 아닐수없다。지난해에 1만5천명線을 유지하던 東南亞지역교민이 올해에는 1만9천8백여명으로 는데 대해 외무부관계자들은 脫中東붐에 큰영향을 받았기때문인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東南亞지역、특히 그중에도 새로운 資源보유국으로 각광을받기 시작한 아세안(東南亞국가연합)5개국에 대해 우리가 과거 中東을 상대로 뿜어온 건설·기술수출의 熱氣가 돌려지기 시작하는 조짐으로 분석하고 있다。東南亞지역의 교민수는 앞으로도 더욱 伸張될 추세이며 특히 지난 6·7월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 巡訪은 이러한 신장추세의 加速요인이 될것으로 보고있다。

유럽지역의 교민이 한햇동안 3천여명이나 준것은 실제교민수가 준것이 아니라 스페인領의 라스팔마스지역에 취업중인 4~5천명의 체류자를 금년부터는 통계의 편의상 中東지역의 증가인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20년의 移民역사를 갖고 있는 南美의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는 각각 1만1백31명、4천6백70명、5천3백39명으로 완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이는 이들국가들과의 이민협정체결문제가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볼수있다。아프리카의 경우 80년보다는 줄었으나 21개국에 1천2백여명에 달해 아프리카의 奧地에까지도 한국인의 얼이 심어지고있음을 느끼게 한다。

올해에 늘어난 재외교민수는 대략 12만명線이다。이 숫자는 지난해의 12만7천명을 상회하지는 않지만 매년 평균 12만명정도의 교민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한번쯤 再考해볼 문제가 아닐수 없다。이 숫자는 물론 현지교민의 자연출산율과 사망률을 감안한 통계이기때문에 매년 국내한국인 12만명이 외국으로 移住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차라리 지금처럼 폭발적인 인구팽창에 신경을 쓰는 입장에서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해외移民을 권장할 필요도 없지않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따질때 在외교민의 증가는 바람직한 일일수도 있다。세계속의 한국인이 늘고 그만큼 한국의 입김과 영향력을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모티브가 되기때문이다。

그러나 교민모두가 현지에 정착、그곳을 고향으로 삼더라도역시「뿌리」만은 한국에 뻗고 있어야할것이다。이 뿌리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더욱더 깊이 뻗게할 土壤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의 소관사항이다。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행정당국의 지대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10·26사태이전 在外교민에 대해 행정부일각에서는 새로운 僑民觀이 고개를 든 적이있다。말이 僑民이지 이들 거개가 현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있는데다 현지語와 현지생활양식으로 살고 있는 사실상의 「外國人」과 다를 바 없다는 僑民觀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僑民정책은 이들이 근원적으로 한국인이라는아이덴티티(同質性)만을 인정하는 線에서 그칠것이지 母國에 대한 僑民들의 요구나 시정사항을 굳이 傾聽할 필요가 없다는、한마디로 현실적인 眼目에 근거하는 정책이 돼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그나름의 論理를 인정받아 교민정책에 관한한 한때 외무부당국의 지침으로 굳혀지기도 했다。현지의 市民權을 갖고있음에도 본국정부에 대한 권리행사를 강조한다는 것은 국제사법상 二重國籍者의 소행(?)과 다를바 없다는 論據였다。

더구나 몇몇 교민들 가운데 反정부활동을 벌이거나 툭하면 과당하거나 부당한 對정부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않았던 사례에 비추어 정부로서도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했다는점을 감안할때 교민정책의 이러한 旋回는 불가피했던 일이다。

외무부에 발을 들인 외교관들은 으레 한두차례씩 領事업무를 맡게된다。

領事업무는 주재지역僑民에 대한 보호육성을 기본으로 한다。정통적인 외교업무와는 다르지만 初年외교관이면 으레 거쳐야하는 필수코스이기 때문이다。그러나 領事코스를 마친 외교관10명 가운데 8명꼴이 僑民에 대해 좋지않은 인상을 받고 귀국한다는 것은 큰 문젯점으로 지적된다。

10·26이후 당국은 僑民廳(假稱)신설을 고려한것으로 알려졌다。급증하는 교민들의 복지와지원을 위해 외무부領事僑民局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교민문제를 전담할 새로운 官署의 신설을 立案하려 한것이다。

교민청신설이 알려지자 이사실은 在外僑民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본국정부와 재외僑民을 한데묶는 하나의 상징으로서、또 교민들의 불만을 해소할수있는 先導기관으로서 그필요성이 높게평가된것이다。

「그교민청新設案이 그후 유야무야로 잠적한 이유는 지금껏 궁금하다。국가기관으로서의 교민청을 한갓 불만투성이의 극성파僑民만을 위해 신설한다는데 무리가 따를 것으로 해석할수도 있다。

그러나 소위 극성파교민은 제한돼있다。아프리카의 奧地나 밀림에서、中東의 熱沙에서 생명을걸고 일하는 僑民의 숫자가 더욱압도적으로 많다。이들의 便益을 위해서도、祖國이 보이는 여유와 「뿌리」의 體面을 과시하기위해서도 僑民廳신설은 하루빨리 再論돼야할 문제다。

매년 이맘때면 年例행사로 벌이는 在外교민의 숫자파악에만 급급할일이 아니다。보다 근본적인 僑民정책의 수립과 그필요성이 올해따라 더욱 느껴진다。

해외演藝

몸협즙진 멋장이 신사

사라진 名優 윌리엄·홀든의 생애

◇영화팬들의 기억속에 살아있는 「慕情」에서의 홀든 (左)。제니퍼·존즈와 열연했다。

「가장 서민적인 남성」으로 개성이 강하면서도 평범한 맛을 풍기던 名優 윌리엄·홀든(63)이 16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시체로 발견됨으로써 그의 연기를 다시는 볼수없게 됐다。

1939년 루벤·마물리언 감독의 권투영화「골든보이」로 데뷔한 홀든은 이후 西部劇을 비롯、전쟁드라머·코미디·멜러드라머·서스펜스등 그 어느분야에 있어서도 好演을 자랑함으로써 50년대 美國영화계의 대표적스타로 각광받았다。

1950년 빌리·와일더 감독작품「선셋大路」의 시나리오作家역으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골든보이」로 일약스타덤에

레이건도 名優잃었다 哀悼

그는 1953년 역시 빌리·와일더감독작품인「제17포로수용소」로 영예의 오스카상주연상을 받았다。

같은해 홀든은「푸른달」、54년엔「갈채」、그리고 55년의「慕情」과「피크닉」、57년의「콰이江의 다리」등으로 일약 정상에의 길을 달렸다。그는 美國영화극장主들이 뽑는「머니 메이킹스타 베스트텐」1위 세번、또 10위이내 세번등의 기록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慕情」의 흥행기록으로 2차대전후의 스타부족시대에 나타난 큰 재목이란 평을 듣기도 했다。

홀든은 비단 배우생활로만 바쁜 사람이 아니었다。한 사람의 시민생활에서도 심히 바빴던 그는 LA公園위원회、할리우드 조정위원회、제대군인문제위원회위원등으로 사회활동도 함께 벌였다。

TV계 내막 이야기를 담은「네트워크」서 다시 오스카후보지명을 받았던 그는 그의 거의 모든 작품이 한국에 소개되기도。

데뷔작「골든 보이」를 비롯、「애리조나」、「우리들의 거리」、「콜로라도」、「벡사스決死隊」、「부츠 말론」、「선셋大路」、「사브리나」、「제17포로수용소」、「여성이여 영원히」、「원한의 道谷里철교」、「브라보 요새의 탈출」、「피크닉」、「갈채」、「콰이강의 다리」、「열쇠」、「수지·웡의 세계」、「騎兵隊」、「유혹의 밤」、「코만도戰略」、「와일드 펀치」、「타워링」、「석양의 한간」、「크리스머스트리」、「007카지노 로열」、「제7의 새벽」등이 한국 팬에게도 소개됐던 그의 출연작품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그의 末年의 가정은 평탄치가 않았다。

41년에 결혼한 브렌더·마셜 부인과 별거중이었던 홀든은 몇해전부터 소문이 나있던 캬프시느와의 艶聞도 가라앉아 부인과 화해는 했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었다。

석유와 TV국、영화사、목장、관광사업체를 갖고 있었던 그는 친구들과 더불어 아프리카、뉴기니 등을 자주 찾는 한편 인류학 연구에도 골몰해왔다고 한다。

레이건대통령과 넨시여사의 결혼식때 들러리를 섰을 만큼 레이건과 가까왔던 그는 그외에도 그레고리·펙、글렌·포드등과도 각별한 우정관계를 나누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홀든의 마지막 작품은「The Earthling」。南太平洋에서 촬영한 영화였다。

본명 윌리엄·비들。1918년 일리노이州 오팔린에서 태어난 183㎝의 好漢 홀든은 팬들의 아쉬움속에 이제 영영 세상을 등지고만 것이다。

주간女性

해외 걸작 만화

해외 걸작 만화

LIMITED TIME ONLY!
Oct. 18 through Dec. 17, 1981
ZENITH
THE GREAT CANADIAN REBATE
UP TO $60 INSTANT REBATE
with the purchase of this
ZENITH SYSTEM 3
26" Remote Control Console

ZENITH T.V. 특별 세일
모든ZENITH 씨스템3 T.V세일
기간 : : 10월18일~12월17일까지
※제니스 Co. 에서 $30~$60까지
CASH REBATE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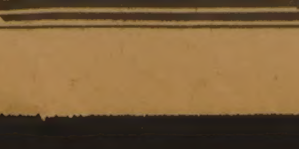
$60 INSTANT REBATE
The TITIAN SN2527
Classic styling. Wood and simulated wood products in Dark Oak finish (SN2527DE) or Pecan finish (SN2527P). Casters.

●REMOTE CONTROL로 조절, 내부에 전화까지 달려 있어 편리.

$30 INSTANT REB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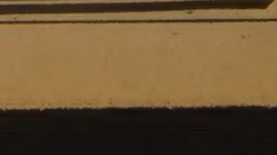
The HOLBEIN SN1961W
Simulated grained American Walnut finish. Black pedestal base. Brushed Aluminum color accents.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한국의 恋人들

燕山主의 魅力 〈12〉

音樂振興과 風流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연산은 술과 노래와 여자, 3요소가 갖추어진 잔치로 나날을 지샜다. 왕의 신분을 망각하고 단지 사나이로서 멋진 삶을 영위하려던 자세야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그만큼 음악을 깊이 이해하고 애호한 임금이 없으니 그를 칭찬하지는 않더라도 매력적인 사나이로 평가해야 마땅하리라

東國名歌集등 간행…전문기관 두고 聲·器樂 훈련·교습

어머니위해 손수 「滌恨歌」作詞、궁중잔치때 부르게도

호색(好色)한 사람은 음악을 애호하는가? 연산만큼은 아니더라도 역시 호색했던 세종과 성종도 음악을 애호했고 애호한 나머지 장려했다.

세종은 박연(朴堧)에게 명하여 아악기(雅樂器)를 개조하여 예부터 전해오는 아악·당악(唐樂)·향악(鄕樂)의 모든 악기·악곡·악보등을 정리시켰으며 정대업(定大業)·보태평(保太平)등 저명한 악곡을 제작케 했다. 그런가하면 성종은 악학궤범(樂學軌範)을 편찬시켰다. 세조 역시 음악을 이해하고 권장한 임금이었다. 남녀 7·8명이 술에 취해 노래하며 악기를 두들기고 서로 희롱하고 춤을 추면서 대궐앞을 지나갔다 하여 체포해다가 벌 주자고 아뢨더니 『서민은 근심이 없으면 노래하게 마련인데 왜 즐기지 못하게 하려는가』고 오히려 관리를 문책했다. 그래서 세조때에는 부녀자들도 거리낌없이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갔고 사대부집 부인들도 장막을 치고 며느리들과 놀았다.

이러고 보니 선왕(先王)들의 치적을 답습하고 능가하려 한 연산이 음악을 외면할 리가 없다. 천성이 그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연산은 동국명가집(東國名歌集)을 간행케 하고, 장악원(掌樂院)이란 전문기관에서 기생을 훈련시키고 음악을 교습케 하였다.

연산은 음악에 관심이 깊었고 제법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15세이상 25세이하의 재주와 자색이 있는 여자로서 글자를 알아야 예의와 음률을 제대로 익히지 않겠냐면서 가인(歌人)의 자격을 논하고 음악은 혈기를 왕성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고 음악부흥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음악수준이 상당했으니 1505년 11월에 지시한 말을 들어보면 알수 있다.

『가흥청·운평악등을 미리 훈련시키지 않아 동짓날 진연(進宴)때에 서로 돌아보며 웃기도 하고, 머리 치장이 엉망이며 태화음(泰和吟)순서때 노래는 먼저 불렀는데 곡은 마치지 않고 처음에는 안 부르다가 나중에 부르기도 하였으니 훈련담당 관원을 매질하라.』

그는 악기의 성능까지도 파악하고 있으며, 일일이 음악인 훈련에 간여하고 음악인을 우대하였다. 1505년1월의 전교 가운데 이런 귀절이 있다.

「많은 악기중에서 당비파(唐琵琶)·현금(玄琴)이 듣기 좋으며, 가야금은 처음엔 좋은데 끝이 처음만 못하고 호가(胡笳)는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듣기에 좋다. 지금 광희악(廣熙樂妓生)들 중에서 철근·귀손등 몇사람만이 잘 부는데 철근이 귀손만 못하다. 적(笛)·필률은 곡조를 익히기 쉬우나 호가는 혀로만 소리를 내는 까닭에 배우기 어려우니 여러 사람에게 가르치라.』〈燕山君日記 五七卷〉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연산은 전문음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혜를 베풀기도 했는데 기생 일점홍과 연연아에게 입고 먹는것을 국고에서 제공할테니 아무 걱정없이 익히라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음악을 가르치되 재주를 시험하여 가장 능숙한 자를 정(正)으로 삼고 그 다음을 종(從)으로 하고, 능숙하지 못한 자는 파면하도록 명령하고 정·종에게 녹봉을 줌과 아울러 정·종의 본가(本家)에도 규정을 만들어 복호(復戶—戶役을 면제하여 주는것)해줌으로써 생활이 윤택하도록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다. 또 호가를 잘 부는 귀손에게는 벼슬까지 내렸다. 그런가하면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거나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리는 매우 천대하였다. 예를 들면 1505년1월22일에 궁궐에서 잔치를 베풀자 여기에 임사홍(任士洪)·이손(李蓀)·김수동(金壽童)·이계동(李季仝)·김감(金勘)·민휘(閔暉)·유경(柳涇)이 참석했는데 유경더러 노래를 부르라 하였다.

유경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겨우 소리를 낼 뿐이므로 끌어내리고 김수동에게 눈을 부라렸다. 『네가 어째서 이따위 사람을 집의(執義)로 삼았느냐?』하고는 왕이 곡에 맞추어 북을 쳤다.

그리고, 연산왕은 직접 노랫말을 짓기도 하였다. 그가 지은 노랫말은 이렇다.

아름다운 공 위대한 덕
하삼도(徽功偉德爲舍音道)
우리 어머니샷다(于里慈母舍叱多)
높은 사랑 깊은 어짐 하
삼도(隆愛深仁爲舍音道)
우리 어머니샷다
녹과 복을 길이 편안히
하사(履福長綏爲舍)
억만 년 누리이소서(享億春是小西)

이 노래는 어머니(죽폐비 윤씨)를 위하여 지은 것인데, 연산이 새로 만들어 처음 사용한 하삼도·우리·이소서등의 낱말이 엿보인다. 연산은 이 노래를 승정원에 내리면서 연방원에서 가르쳐 진연(進宴)시 부르라 하였다.

자신이 노랫말을 짓는데 그치지 않고 신하(金勘·朴說·曹繼衡)들에게 척한가(滌恨歌) 가사를 천구백일명가(天衢白日明歌)의 악장(樂章)에 따라 상하가 서로 화답하는 뜻으로 짓도록 했다.

또 악기 제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한다.

그는 당비파·현금·가야금 각 40, 장구·깡깡이·적(笛)·피리 각 34, 박(拍)·작은 북·아쟁(牙箏) 30을 만들라고 1505년1월에 지시하더니 또 포구락의 제구 2건, 향발(響鈸) 20부를 바삐 만들라 하였다.

뿐아니라 7월에는 이들 악기, 즉 갈고(羯鼓)·거문고·박·적·깡깡이·가야금을 모두 침향(沈香)과 순금으로 장식케 하였다. 툭하면 악기를 만들라고 지시하다가 모자라면 민가에서 징발하라고 명령하고 악기 제조용 나무를 가끔 징발했다. 뿐만 아니라 연산은 피리 잘 부는 기생, 가야금이나 깡깡이 잘 타는 기생을 선발하거나 훈련시켜서 여러 차례 중용하는 등 음악을 애호하는 임금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예인(藝人:妓生)은 미모와 재주·센스를 갖추어야 한다고 믿었던 연산은 처용무를 특히 좋아하여 궁중에서 처용무를 자주 추게 하였고 틀린 점을 일일이 지적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광대가 되어 춤을 추기도 하였다.

그러니 연산은 음악진흥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이다. 다만 그가 주색(酒色)에 조금만 덜 탐닉했더라면 연산의 여러가지 매력이 돋보여 명군으로 기려졌을 텐데, 음악에 조예가 깊고 진흥에 주력하였건만 방탕한 폭군으로만 평가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알아둡시다

우리에게 친근한 美式蹴球는 이렇게 본다

우리는 AFKN-TV를 통해 자주 美式축구를 보게 된다. 美式축구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파이널 스포츠(最後의 스포츠)로 불릴만큼 인기있고 재미있는 경기。그러나 국내 스포츠팬들 사이에선 아직도 생소하여 TV로 중계되는 빅 게임들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형편이다。얼핏 봐서는 대단히 복잡할것 같지만 몇가지 룰만 익혀두면 재미있게 TV로 관전할 수가 있다。

11명으로 돼있는 미식축구는 센터를 중심으로 한 5명을 라인맨(전위)이라 하고 쿼터백과 후위의 4명을 백맨이라고 부른다。

공격할 때는 볼을 갖고 뛰거나 전방패스를 받을수있는 사람은 백맨 4명과 라인맨의 양쪽 옆에 위치한 엔드2명등 모두 6명뿐이다。쿼터백(QB)은 작전을 짜고 볼을 패스하고 넘겨주는 사령탑이다。

구장은 직사각형으로 길이가 1백야드(91·4m)이며 폭은 51~54야드가 보통이다。전구장길이를 5야드 간격으로 백색라인이 그어져 있다。

양쪽 끝에는 엔드존이 10야드 너비로 있고 이곳으로 공격팀 선수가 볼을 갖고들어가거나 패스를 받으면 득점(터치다운、6점)이 된다。

터치다운후 H모양의 골포스트를 넘기면 1점이 가산되고 플레이스킥으로 골포스트를 넘기면 3점을 얻을수 있다(필드·골)。

볼은 고무나 가죽으로 만들었고 양끝이 뾰족한 타원형꼴로 럭비볼보다는 조금 작다。

심판은 레퍼리、엄파이어、라인즈맨、필드저지의 4명、백저지、라인저지까지 6명이 나올 때도 있다。

레퍼리와 엄파이어는 호루루기를 가지고 진행을 맡아보며 이들 6명외에도 보조심판 3명이 따로 있어 이들중 2명은 10야드길이의 체인을、1명은 다운판을 들고 공격위치및 볼의 위치를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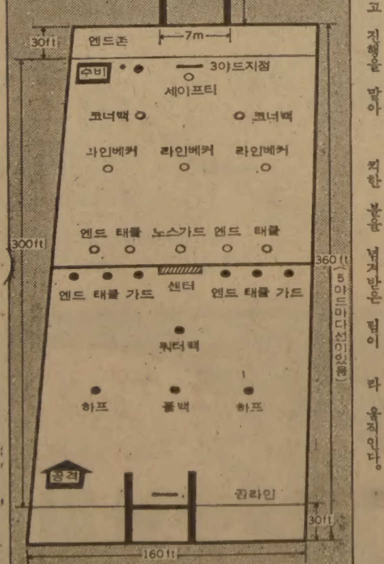
경기시작은 먼저 킥을 하게된 팀이 자기진영 35야드지점에 볼을 세워놓고 키커가 상대진영으로 볼을 차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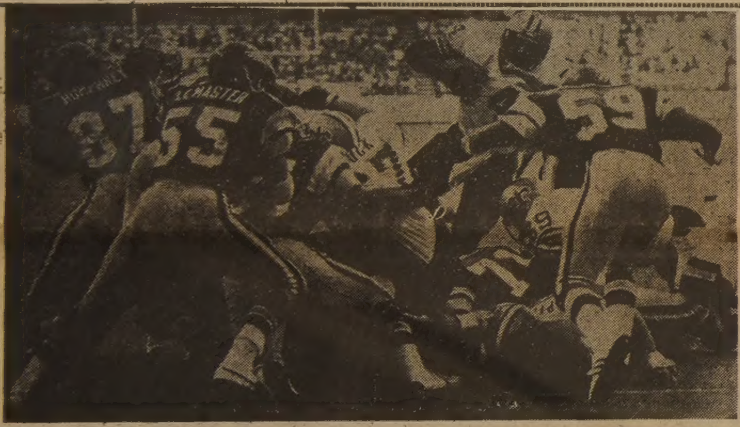
킥한 볼을 넘겨받은 팀이 攻擊이되고 킥한 팀은 守備가 된다。킥된 볼을 받은 공격팀 선수는 상대편골을 향해 얼마든지 달려갈 수있고 수비측에서는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는다。볼을 받은 선수가 달려가다가 수비선수에게 저지당하면 그 지점에서 비로소 공격이 시작된다。

공격팀은 저지당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하는데 네번공격해서 10야드이상을 돌파해야한다。이때 10야드를 넘지 못하면 상대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고 10야드를 넘으면 다시 4번의 공격권을 얻게 된다。

포지션에 따라서 임무를 각자 분담하는데 정밀한 콤비네이션을 요한다。보통 한팀에 30~40개의 다양한 작전지도가 있어 그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미식축구 선수위치





◇미국인들에게는 최고의 인기를 끌고있는 美式축구。우리도 몇가지 룰만 알면 재미있게 볼수있다。

쿼터·백은 作戰짜는 司令塔

엔드·존에 볼 갖고가면 得點

■공격형태는 세가지

공격형태는 크게 센터러시(중앙돌파)、포워드패스(전방패스)、엔드런(측면돌파)의 3가지가 있다。

경기중에는 땅에 떨어진 볼을 주워 게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와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핸드오프된 볼은 살아있고 전방패스된 볼은 죽었다고 보면 된다。

핸드오프란 QB가 센터로부터 전해받은 볼을 백맨이나 양 엔드에게 손으로 직접 전해 주는 경우。

핸드오프된 볼은 이볼을 갖고 뛰는 볼 캐리어가 상대수비의 태클이나 블로킹을 당해 볼을 땅에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볼캐리어의 실수로 볼을 잡았다가 놓쳤을 때도 살아있어 먼저 잡는쪽이 임자가 된다。

이 경우 수비팀선수는 물론 공격팀 전위(라인맨)들까지도 볼을 줍고 공격행위에 참가할수가 있다。

QB가 전방으로 패스를 했으나 자기팀선수가 이 볼을 놓쳤을때는 볼 데드다。

이때 패스볼이 날아가는 동안 수비선수들은 누구나 볼을 잡을수있다。전방패스는 반드시 볼을 QB자신의 어깨보다 높이 올려서 던져야 한다。

전방패스외에도 양손이나 한손으로 뒤쪽으로 볼을 넘기는 래터럴패스가 있는데 래터럴패스때 실패된 볼은 살아있는것으로 역시 먼저 차지하는 쪽에 돌아간다。

공격팀이 마지막공격(라스트다운 또는 포스다운)에 종종 볼을 상대진영으로 차넘기는 경우가 있다。이것은 펀트라고 하는데 이는 4번째 공격에서도 10야드를 넘지 못하면 공격권을 그자리에서 넘겨주어야 하므로 볼을 상대진영 깊숙이 차넘기는 것이다。

이때 펀트된 볼은 수비팀 소유가 되나 만약 수비팀 몸에 맞고 튀었을 경우 이 볼 역시 먼저 잡는 쪽이 차지하게 된다。

정상적인 공격형태하에서는 공격팀이 득점하게 되지만 공격팀의 실수로 수비팀에게 볼로소득을 안겨줄 경우도 있다。공격팀이 공격을 펴다 자기지역 엔드존 안에서 볼캐리어가 상대수비에게 잡혔을 경우도 이를 세이프티라고하며 수비팀이 2점을 얻게된다。

■벌칙적용은 세가지

미식축구의 벌칙적용에는 크게 5야드후퇴、10야드후퇴、15야드후퇴의 3가지가 있다。

5야드후퇴는 센터가 볼을 패기전에 적극적인 공수행위를 하는 오프사이드、게임지연、부정위치、인원초과、벌칙동작등이 있다。

10야드후퇴는 볼을 갖고 있는 선수를 손으로 지게、상대의 프로테트를 잡았을 때、데드볼이 된후 고의적으로 찼을 때、15야드 후퇴는 상대편의 마스크를 잡았을때나 볼에서 손을 뗀후의 QB나 키커를 거칠게 차징했을때등이다。

현재 미국의 미식 축구는 프로와 대학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프로팀이 본격화한 것은 1929년 내셔널 풋볼 리그(NFL)가 조직되면서부터。현재 NFL은 산하에 내셔널 풋볼협회(NFC)와 아메리칸 풋볼협회(AFC)가 있고 양 협회는 각각 14개씩의 구단을 거느리고 있다。

각팀은 대도시에 프랜차이즈를 두고 있으며 양 협회 산하팀이 다시 동-서-중부지구로 나뉘워 9월부터 12월중순까지 1주1게임씩 정규리그 16게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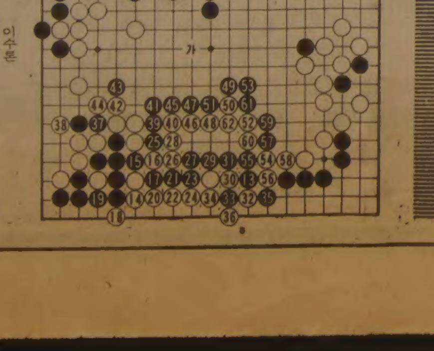
각지구의 1위 3개팀과 3지구의 2위팀중 가장 승률이 높은 팀(와일드카드팀) 1개등 4개팀이 승전해 토너먼트로 수위팀을 가려내는데 이팀이 양협회를 대표하게 된다。

양협회 승자가 단판으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 슈퍼볼。슈퍼볼은 지난 66~67년시즌부터 열려 올시즌이 15회째가 되며 내년 1월20일께 열린다。

프로팀 이상으로 인기있는 대학미식축구는 팀수가 수천개에 이르며 이중 2백52개팀이 20군으로 나뉘어져 주요리그전을 벌인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第8譜111~162 (각 5시간 덤 5집반)



白(7段)河燦錫〈1敗〉
黑(7段)徐奉洙〈1勝〉

상변을 黑11로 넘어가고 하변을 黑13으로 넘히게 되어서는 黑이 완전히 열세에서 벗어나 이른바 막상막하의 형세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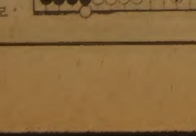
이럴때일수록 쫓겨온 白으로서는 무엇보다 침착한마음가짐이필요하다。그런데 河7단은 추격을당한 일에만 신경을쓴때문인지 갑자기 白14로 하변의벽을 막았다。한말로해서 초조감이 빚어낸 과격한 수단。좀더 차분히 대세를 살폈더라면 14로「가」정도에 두어서 덤만큼은 충분히 남을형세임을 계산해냈을터인데 실로 애석한 노릇이다。

세를 만회한 徐7단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리는 없다。당장 黑15、17로 나와 끊어 일대 혼전이다。마치 어거지같은 싸움이지만 白28까지 필연인데 黑29가 천추유한의 완착이었다。

彼此、好機를 놓치다

이수론

참고도처럼 黑1、3이 올바른 수순。이하 黑13까지된 다음 黑은「A」와「B」를 맛보게되니白은 낙관불허라기보다 승산이 없었을지 모른다。



白62까지를 필연으로 보는 이 결과는 공연히 黑29로 꼬부린 때문에 「빅」이 긴하나 黑은 실리를 크게 잃고 게다가 가운데 黑勢도 허세。피차 한번씩 失機를 했지만 黑의 허물이 컸다。【一凡】

얘기의 샘

無法者

미국 서부의 어느 조그마한 거리의 술집은 선량한 시민들로 흥청대고 있었다。권총싸움같은건 오랫동안 없었다。평화롭기만한 거리였다。

그런데 거기에 한 무법자가 나타나 다짜고짜 위스키를 더블로 4잔이나 단숨에 들이켰다。흥겹게 얘기하고있던 손님들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해졌다。

「이봐、대체 너희들은 뭐냐!」

무법자는 권총을 뽑아 천장에 한방 쏘고 말했다。

「이 오른쪽 녀석들은 모두 바보자식들이군그래… 그리고 왼쪽에선 놈들은 모두 애비없는 후레자식들이냐!」

그때 오른쪽에 섰던 젊은 사내가 뚜벅 앞으로 나왔다。무법자는 겁나게 총을 겨누면서

「네가 상대할 테냐!」

젊은 사내는 아주 얌전히 침착한 얼굴로 걸어가면서 대답했다。

「아니요、나는 다만 자리를 잘못 서고있었을뿐이라 옮기는 중입니다」

쉬운말

〈YMCA 명예총무〉 전택부

역사적으로는 아마 세종대왕이 제일 먼저 쉬운말 쓰기운동을 했다고 볼수 있다。어려운 한자말 대신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의 창제는 곧바로 쉬운 우리말 쓰기운동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일정 때는 연희전문(연세대)이 쉬운말 쓰기운동의 선구자인듯 싶다。그 학교의 동양학교수이던 爲堂 정인보 스승도 어렵고 괴팍한 한문의 대가였으나 국학 강의를 할 때도 쉬운 우리말만을 가지고 했던 것이다。

숭실전문(숭실대)의 국문학 교수이던 无涯 양주동박사도 만날 어려운 한자말을 가르쳐야 했다。우스운 얘기지만、양박사가 한도 어려운 한자말을 많이 아니까 심술 궂은 학생 하나가 선생을 골려주기 위하여 「선생님、남자의 생식기를 陰莖 陰莖하시는데 임금님의 그것은 뭐라 합니까?」했다。그러니까 양박사는 「그걸 내가 모를 줄 아나? 玉莖이라 하지」해서 학생들을 와락 웃기고 두 손을 번쩍 들게했다는 얘기다。

이처럼 한문의 대가일수록 쉬운말 쓰기운동에 앞장섰으며 그들이 다같이 기독교계 학교 교수였다는 것이 또한 묘하다。문헌상으로는 성경을 들수 있는데、가령 예를 들면、1910년 처음으로 번역출간된 구약성경의 신명기 23장1절을 보면 『무릇 불알이 상한 자나 신을 버힌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드러가지 못할 거시오』했다。한국 이보다 노골적인 표현을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

그런 것을 1937년 개정판을 낼 때는 불알을 신낭(腎囊)이란 한자말로 고쳐놓았던 것이다。천한 말로 성경을 번역해선 안된다는 생각에서였다。하나 어원적으로는 불알은 신낭보다 훨씬 고상한 말이다。아니 그것은 아주 신성한 말이다。불은 태양 또는 신의 뜻이고、알은 씨 또는 정자의 뜻이어서 한민족은 천신족의 후예란 뜻에서 만들어진 고상한 말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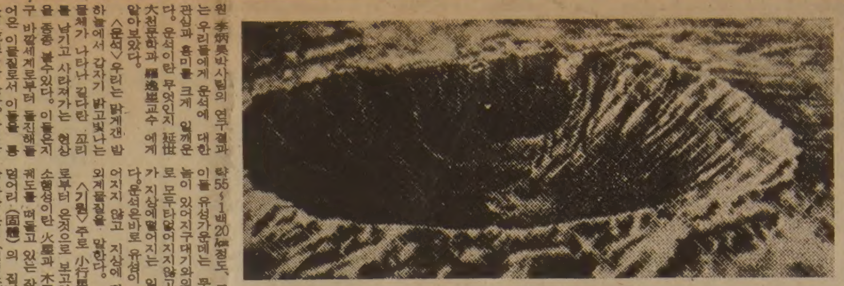
다행히도 1978년 공동번역이 나올때는 신낭을 도로 불알로 바로잡았고 싶은 자지로 고쳤으나、우리 의식구조 속에는 아직도 한자말이라야 고상하다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고서야 어찌 참다운 우리의 민족문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寸字春秋

隕石이란 무엇인가

楊口「펀치·볼」구덩이 確認계기 羅逸星교수에 듣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美애리조나州의 운석구멍이。

6·25의 격전지 펀치볼(강원楊口郡亥安面亥安분지)이 지금으로부터 1천만년전 직경1백88m、무게 2천7백만톤 짜리의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 만든 세계최대의 운석구덩이란 한국과학기술원 李炳昊박사팀의 연구결과는 우리들에게 운석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크게 일깨운다。운석이란 무엇인지 延世大천문학과 羅逸星교수에게 알아보았다。

〈운석〉우리는 맑게갠 밤하늘에서 갑자기 밝고빛나는 물체가 나타나 길다란 꼬리를 남기고 사라져가는 현상을 종종 볼수있다。이들은지구 바깥세계로부터 돌진해들어온 이물질로서 이들을 통틀어 流星이라 한다。유성은 크기가 대부분 몇분의 1g정도의 작은입자로 되어있다。그러나 그 속도가 평균 초속 10~20㎞에 달해 지구 대기와충돌、높은 열을 발산 빛을 내게된다。유성이 지구대기권과 충돌하는 높이는 대략55~1백20㎞정도、그러나 이들 유성가운데는 무척 큰 놈이 있어지구대기와의 마찰로 모두타없어지지않고 일부가 지상에떨어지는 일이 있다。운석은바로 유성이 타없어지지 않고 지상에 떨어진 외계물질을 말한다。

〈기원〉주로 小行星과 달로부터 온것으로 보고있다。소행성이란 火星과 木星사이 궤도를 떠돌고 있는 작은돌덩어리(固體)의 집단。이중 가장 큰것(쎄레스)은지름이 7백70㎞나 된다。지름이 10㎞이상 되는것이 1만개、1m이상 되는것은 1백조개 정도에 이를것으로 보고있다。그러나 이들 소행성은 숫자는 많지만 전체 질량은 달의 3%정도에지나지않는다。이들 소행성이 지구대기권으로 끌려 들어 오는것은 이중의 일부가 화성의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 접근해오기 때문。

현재 지구 궤도로 접근한 비교적 큰 규모의 행성수는 34개。소행성의 일부는 이미 지구궤도를 벗어난것도있다。이중 헤르메스로 불리우는소행성은 지구에 80만㎞、즉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2배정도까지 바짝 접근했다。아슬아슬하게 빗겨나간것도있다。만일 이같이 큰 규모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지구는 끝장이 날수도있다。

달에서 온 운석은 소행성과같은것이 달표면과 충돌한다든지 했을때 달에서 떨어져나온 파편이 지구중력에끌려 날아온것이다。

이밖에 태양계 밖으로부터 온것도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流星일부가 안타고 떨어진것
거의 黑褐色…石質이 90%차지
8百여개 落下확인…南西阿 66톤이 最大

〈모양과 種類〉검고 흑갈색을 띠고있다。

구성물질에 따라 크게①석질운석②철운석 ③석질·철운석으로 나누고 있다。이중가장 흔한것은 석질운석。90%정도가 석질운석이고 5~6%정도가 철운석이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운석의 모양과 구성물질은 모두 조금씩 다른 다양성을 보인다。철운석은 거의 전부가 니켈과 철의 금속덩어리로 이루어져있다。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운석의 이모 저모를 설명하고 있는 羅逸星박사。

〈나이〉지구의 나이와 비슷한 45억년 안팎을 나타낸다。따라서 운석이 태양계에서 생성된것임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그러나 더러는 구성물질이 태양계물질과 다른 복잡한 형태를 가진것이 있어 주목을 끈다。이들은태양계밖으로부터 날아 들어온 것이 아닌가 보고있다。

이때문에 태초 지구생명체의 씨는 태양계밖에서 날아 들어온 이들 운석이 날라다 준것이 아닌가 보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수와 크기〉현재 운석으로 확인된것은 1천7백개정도。이중 8백여개는 실제로 떨어지는것이 확인된 것들이다。

운석의 크기는 작게는 1g정도에서 크게는 수십톤짜리까지 다양하다。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규모의 운석은 南西아프리카에서 발견된 66톤짜리。다음이 그린란드의 36톤、멕시코의 26톤짜리의 순이다。그러나 이들은 모두 운석이 떨어진후 상당한 세월이 지나 발견된 것들이다。최근에 발견된것으로 1948년 美캔자스州에 떨어진 1톤짜리이다。우리나라엔 서울大 兪景老교수 연세대 羅逸星교수등이 10여개를 소장하고있다。

生活科學

〈운석의 비(雨)〉큰 덩어리의 유성이 대기권과 충돌、수많은 작은 덩어리로 깨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다。이땐 마치 밤하늘에 불꽃 놀이라도 하듯 돌비가 내리게 된다。1868년 폴란드에선 10만개 이상의 운석비가 내렸고 1912년엔 美애리조나州에 1만4천여개의 돌비가 내리기도 했다。

〈운석구덩이〉운석이 떨어져 만든 구덩이를 뜻한다。현재 알려진 유명한 운석구덩이는 악마의 계곡으로 불리는 애리조나운석구덩이。직경 1천2백80m、깊이 1백80m짜리이다。

〈충돌확률〉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인공위성이 운석과 충돌할 확률은 대단히 희박하다。예를들어 직경 3m정도의 인공위성이 24시간 비행할때 1·25g짜리 이상의 운석과 충돌할 가능성은 2천분의 1에 지나지않는다。하지만 1g짜리 운석이라도 충돌하게되면 날아가는 속도가 대단해서 수㎜의 철판을 뚫을수 있다。【李光榮기자】

浸蝕작용은 白堊紀부터

「펀치·볼의 生成원인」 논문에서

변성암에 싸여있는 花崗岩지역
오랜 物理·化學작용으로 盆地化
이런過程 되풀이…펀치·볼이뤄

펀치볼에 대한 관심은오래전부터 있어왔다。지난 67년에는 당시 서울大 文理大 지질학과 교수였던金鳳均씨가 美 스미드소니언연구소의지원을받아 「펀치볼의 생성원인」에 대한연구논문을 발표、펀치볼은 변성암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화강암지역이며 오랫동안 차별적인 침식작용(Differential weathering)에 의해 커다란 구덩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또 이러한 침식작용은 白堊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었다。

◇金鳳均교수

일반적으로 지형학적으로 볼때 지구의 생성은 세단계로 구분된다。첫 단계가 대륙과 대양의 형성이며 평야、고원、산맥이 나타나게된것이 두번째단계。계곡、산봉우리、절벽、분지등은 세번째단계에서 형성된다。펀치볼은 세번째단계에서 형성되었다는것이 金교수의 주장。

펀치볼 주위는 매우 높은산으로 이루어져 있다。지질학적으로볼때 삼떠지역은 운모·편암등의 수성암이 변질된 변성암으로구성되어있고 오목한 분지는 화강암으로 형성되어 있다。이 지역의 지질학적구조는 복잡하지않아 변성암과 화강암지역의 경계가분명하다。

변성암과 화강암의 생성연대는 분명치않으나 변성암은 前캄브리아紀에、화강암은 白堊紀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강암은 대략 섭씨6백50도~1천2백도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다른 환경조건에선 풍화되기쉽다。이에 비해 변성암은 풍화정도가 약하다。이 때문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화강암지역이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침식작용에 의해 오목한 분지로 되었다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을「차별적인 침식작용」이라 부른다。이런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서 현재 우리가 볼수 있는 펀치볼로 형성된것이 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金교수는 펀치볼 지역이 둥글다는 특이한 형태를 하고있어 펀치볼의 형성요인에는 다른것도 고려될수 있으나 달리 설명할 정확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예뻐지는 秘訣은 菜食"

女子프로테니스 10代기수 하나·만들리코바 밝혀

"李德姬는 부지런해 難敵은 질긴 에버트"

◇프로테니스 신흥국가 체코의 여자테니스 10代의 기수인 하나·만들리코바。

프로테니스 선수는 큰타이틀、많은 상금이 걸린곳이라면 어디든 자기 길이요 집이다。체코의 프로테니스 스타 하나·만들리코바(19)의 한국방문은 그러한 프로선수들의 속성을 전제하더라도 국내스포츠계에서는 진귀한 일이아닐수 없다。

『연중 3백일이상을 라켓휘두르는 일과 여행가방꾸리는 일로 보내지요。재미도 있고 힘도 들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짜증도부리고요。』

주최측의 무모한 스케줄과 자신의 빠듯한 일정때문에 만들리코바는 17일낮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잠실종합체육관의 특설코트사정을 살펴야했고 2만여무료관중들의 횡포에 가까운 소란속에 내리 3경기를치려야했다。

지난 15일까지 체코의대표선수로 페데레이션·컵여자테니스대회에 출전했던 만들리코바는 18일 서울초청대회가 끝나는대로 19일 출국、다시 日本에서 열리는 후지TV의 세계여자프로테니스대회에 출전토록 되어있다。

마치 친어머니처럼 조용하고 다정하게 만들리코바를 감싸고 다니는 코치이며 60년대후반의 스타 플레이어 베티·스토브는 이렇듯 바쁜 일정을 밝히면서 만들리코바의 무례를변호한다。

『큰대회에 자주빠지면 랭킹도 떨어지게 되지요。서울여행은 랭킹에 아무 도움도 주지못하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극성스러울 정도로 친절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1m75、58kg의 날씬한 몸매、어린티를 벗지못한 귀엽고 동그란 얼굴。눈부시게 흰 피부로 더욱 테니스·팬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만들리코바의 예뻐지는 비결은 과일과야채식、그리고 언제나 밝은마음을 가지는 명랑한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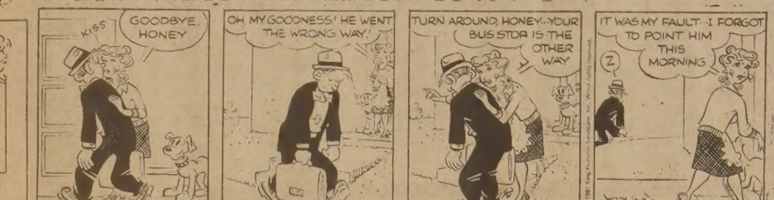
랭킹4위의 그가 가장대적키 힘든 상대는 랭킹1위의크리스·에버트(미국)。에버트의 강인한 체력과승부욕에꺾여만들리코바는금년윔블든준우승에그쳤다。

李德姬와는 지난 全美오픈에서 대결、스트레이트승을 거뒀으나 이번 서울대회서는 심신의 피로도있었고 모국팬들앞에선 李德姬의 놀라운 분투에 8—6으로졌다。만들리코바는李德姬에 대해『대단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뛰는선수』라 호평했다。

만들리코바는 세계랭킹2위의 트레이시·오스틴과 안드레아·얘거등 美國의 신예들과함께 기존 테니스계를 뒤흔드는 여자테니스 10代의 기수。빌리·진·킹、굴라공、에버트에이은테니스여왕으로발돋움을위해시계바늘처럼꽉찬스케줄을달리고있다。【峋】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잘다녀와요, 여보" —쪽—　"아이구 맙소사! 엉뚱한 길로 가고 있잖아!"　"여보, 방향을 돌리세요… 당신 버스정류장은 다른쪽이에요."　"이건 내잘못이야…오늘 아침에는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걸 깜박 잊었어。"

文壇史의 오랜主役

趙演鉉씨의 生涯와 文學세계

한국문학 理論정립 큰기여
「現代文學」발전에 깊은애정
詩로출발…「左」에맞서 評論家로

외국여행중 뜻밖의 죽음을 맞은 故趙演鉉씨는 5척 단구의 多病型 文士였으나 일에 대한 意欲이 남달리 높았던 열정가였다。문단에 데뷔한 무렵에는 詩를 썼으나、해방 이후 사회혼란과 함께 한국 문학이 혼돈에 빠지자 『문학전반에 걸친 뚜렷한 理論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평론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잡지사상 가장 오랜 연륜을쌓은 月刊문예지 「現代文學」을 창간하고 이후 대부분의 정력과 시간을 「現代文學」발전에 바쳐왔다。잡지발행은 全文學활동가운데 그의 인간적인 애환이 가장 진하게 담겨있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東國大교수·예술원회원·漢陽大국학연구위원장·잡지협회회장등의 자리와 한국문인협회이사장자리에 4選되는등 공식직함만 4~5개를 달아 「감투가 많기로 이름난 文人」으로 일러지기도 했다。그러나 본인은 「現代文學」주간자리에 가장 깊은애정을 쏟았고、마지막 순간까지 불황으로 잡지의 부수가 내려가는 문제에대해 걱정을 했었다。

그는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직을 네차례나 맡으며 文壇내에서 저항세력을 만들기도 했고、지난 겨울1월에 있었던 文協총회에서 이사장으로 다시 뽑힌후 『後進들에게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임기동안 文協정관을 고쳐서 後進들이 나올수 있도록 이사장 선거제도를 직접선거등 다른 방법으로 고치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해방직후 좌익문학계에 대항하는 민족문학이론을 세우는 각종 평론을 쓰고、그것을 계기로 詩作을 포기하고 문학평론가로서의 길로 가게됐다。

그의 평론은 논리의 날카로움과 整然함이 뛰어나며、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主張을 전개하는 바탕에는 뜨거운열정이 받치고 있어 自己信念에있어서는 언제나 철저한태도를 지녔던 삶의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같은 자신의 평론에 대해 『나는 나의 평론이 하나의 평론이기전에 나의 人生과 정신세계에대한 나의 內的체험과 主觀의표현이도록 쓰고싶다』고 밝혔다。

77년에 묶어 냈던 그의 全集 6권은 우리나라 문학활동과 문학발전을 살펴볼수있는 하나의 鳥瞰圖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55세가 넘으면서부터 청년 시절에 썼던 詩에 대해 마음을 돌려 詩作을 다시 시작했다。최근 한국일보에 발표한 詩「하늘과의 距離」는『人命이 在天이듯/人事도 在天/흔들리는 마음도/저 하늘의뜻인가/사람사는 세상에는 길도 많은 데/하늘이 보여주는 길은/알 수가 없구나/知天命 나이에/하늘은 더욱 멀기만 하다』하고 적혀、그의 뜻 밖의 죽음에 대한 印象을 더욱 깊게 한다。

理事長 4選…일부 抵抗받아

그는 文協 이사장 선임 문제로 문단일각에서 「권력지향형의 文士」라는등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그를 따르는 文人들 사이에선 『후배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끌어주는 선배、따뜻한 人情을 가슴속에 감추고 있었던 정이많은 人物』로 묘사됐다。그의 타계로 비게 된 文協이사장직은 상임부이사장으로 있는 趙敬姬씨가 직무대행하게 된다。【桂】

暴走族 회피법

톰영감의 방목지(放牧地)한가운데 한줄기 구길(舊道)이 뚫려 있었다。

옛날엔 역마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달던 길인데、지금은 목장의 유우(乳牛)들이 한가롭게 거닐고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목장길에 요즘 이변이 일어나고 있었다。하이웨이서 스피드를 즐기다못한 오토바이폭주족(暴走族)들이 이 통쾌한 흙길을 미친것처럼 폭주하는 재미를 들였기때문이다。

이때문에 골치를 썩힌 톰 영감은 〈소들에 주의、스피드를내지말라〉는 팻말을 써붙여 봤으나 아무도 들어먹지를않았다。그래서 영감은 온갖 지혜를 짜낸끝에 빨간색깔로 다음과 같은 팻말을써서 길목에 꽂았다。

〈여기는 누디스트캠프장、스피드를 줄여 폭음을 내지 말아주시오!〉

IRA의 새戰術…「壁畵투쟁」등장

벨파스트市 곳곳 「시대예술」評價도

에이레공화군(IRA)의 투쟁을 말해주는 北아일랜드 벨파스트시의벽화。길거리의 벽이라고 투쟁수단에서 제외될수없음을 말해준다。

벨파스트의 하루는 총성과 화약냄새로 시작된다。IRA가 투쟁방식을 단식에서 테러로 바꾼뒤 신구교도간의 싸움은 갈수록치열해져가고 있다。

그래서 벨파스트시 곳곳에는 IRA의 계속 투쟁을 다짐하는 벽화가 눈에 띈다。

총을든 전사(上·中)。「정의를 위해 단식하는자에게 신의축복을」이라는 구호아래를 장한 성모마리아(下)。

IRA의 벨파스트 벽화는 시대상을 묘사하는 「시대예술」로 승화되고 있는 느낌이다。【슈피겔誌】

한국일보 詩壇

빗방울

金相華

어제라는 옛날에 밤을 그으며
빗방울 하나가 잎새에 떨어졌다
하늘이 가라앉는 소리
땅덩어리가 갈라지는 소리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세월의 처음에서
구울러、

흐을러、
점에서 선으로 이어져
선에서 점으로 다듬어져
그렇게도 알뜰히
잎새에 담겨지는 정성
그렇게도 정결하게
잎새에 맺혀지는 음성
잎새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눈물이 되어
이승에서 손이 가장 허전한 사람의
가슴에 고여 지겠지
빗방울에 맺혀진 음성은 울음이 되어
이승에서 마음이 가장 썰렁한 사람의
눈동자에 고여 지겠지
오늘 아침
잎새의 빗방울 하나가 땅위에 떨어졌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걸작漫畵

「목욕 시간—!」 "Bath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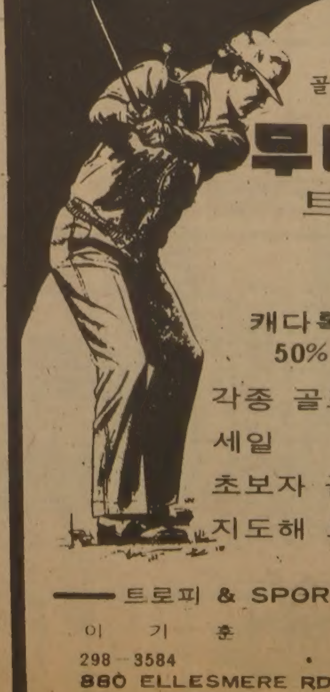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529 BLOOR ST. W.
전 화: 533-3545~6, 533-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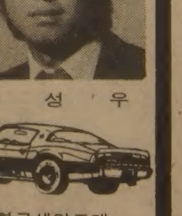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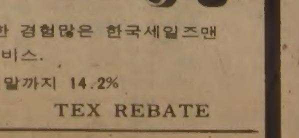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MARVIN STARR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 각종VAN트럭
● 데모카
● USED CAR


신 성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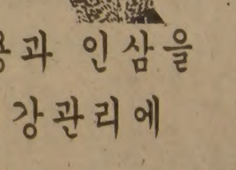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세일즈맨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GMAC이자율11월말까지 14.2%
TEX REBATE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264-2311 (PAUL SHIN)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416) 977-8858-9
10AM → 8 : 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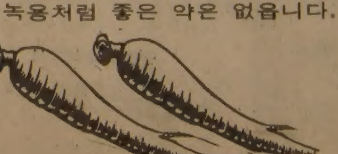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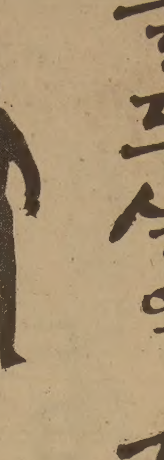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畵

⑤①

입맞춤은 길고 느꼈지만 가슴 속에 있는 내 욕망을 잠재우기에는 미련이 남았다.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랑하면 서로를 아낌없이 주는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나의 일방적인 계산일뿐 다혜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그까짓거, 남들 다 하는 일인 걸, 가벼운 마음으로 옷을 벗어주면 그 뿐인걸. 그게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이건 약속하고 틀린 거야.』

내 손이 자꾸 위 아래로 오르내리자 다혜가 내 손목을 잡고 한말이었다.

『예외라는 거 있잖아.』

『다른 데 가서 알아봐. 첫월급 탈 때 무상대여한댔지 취직 되면 이런다는 거 아녔다구. 무지무지하게 지금 봐주고 있는 거야.』

> **지난줄거리**
> 최대의 재벌 총수 김갑산 영감은 춘찬의 오기와 배짱을 사겠다고 나섰다. 춘찬은 필기시험 답안지 위에 총재위원들 벼락이나 맞으라고 썼지만 최종합격자가 되었다. 그것도 비서실 계장이라는 막강한 보직이었다. 춘찬은 김갑산 회장이 보통내기가 아니라는 점을 믿고 암행감사반장이란 직책을 수락한다. 그리고 그는 다혜의 입술을 약속대로 무상 대여받으러 간다.

『너 페팅이란 거 알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거의 페팅은 다 한대드라.』

내 욕망의 지시대로 하고 싶었다.

『그건 여성지가 칸 메꾸느라고 사기 친 걸 꺼야.』

『넌 정말 욕망도 호기심도 없니?』

『그거 집에다 두고 왔어.』

『정말 이럴 거야?』

『어린애처럼 보채긴. 그렇게 급하면 정식으로 청혼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되잖아.』

『너, 정말 이렇게 나오면 결혼한 뒤에 고생 좀 해야 할 거야. 속을 박박 긁어 놓을테니까.』

『난 바가지 독독 긁을 거니까 피차 일반이지 머.』

『다혜야.』

내 목소리 속에는 애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다.

『왜 그래.』

『우리 한번 사고 내보자. 기삿거리 좀 만들어 주자. 내가 불쌍하지도 가엾지도 않니?』

『아니.』

나는 피식거리며 웃었다. 마치 나무토막과 마주 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다. 다혜는 입술 이외의 어느 것도 허락해본 적이 없는 여자였다. 내가 아무리 술수를 쓰려고 해도 넘어가 주지 않는 여자였다. 그녀가 입술을 허락한 것도 자존심을 꺾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진을 뺐는지 모른다.

『기내스북에서 며칠씩 키스했다는 자식들, 보통 깡다구가 아녔구나.』

나는 담배를 빼어물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입맞춤을 오래 한다는 건 중노동이었다. 침도 마르고 힘도 빠지는 일이었다. 더구나 욕망이란 놈, 내 전방진 아랫도리가 입술 끝에 버티고 있는 한 더 피곤한 것이었다.

『좋든 횟수로야 챤이도 기네스북에 수록될 만한 인물일 걸.』

다혜가 이렇게 빈정댔다. 그건 사실인지도 모른다.

『너같이 독종도 올라가야 하겠지.』

우리는 그날밤 그 이상의 웅어리를 풀지 못한 채 헤어졌다. 다혜는 언제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지킬지 모르지만 나도 그렇게 섣사리 물러날 위인은 아니었다.

언제고 널 훔치고 말겠다.

나는 헤어지면서 다혜의 뒤통수에 다 대고 이런 말을 했다. 다혜는 호들거리며 웃기만 했다.

홍분제 두알이면 다혜를 훔칠 수 있다. 아니 한알이어도 된다. 돼지를 발정시키는 홍분제 한알이면 다혜를 힘없이 훔칠 수도 있다. 그러나 난 그럴 수 없었다. 다혜에게만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에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 힘차게 팽창해진 내 욕망의 불을 끄지 않고는 도저히 잠들 것 같지 않았다. 괜히 온주누나를 상상 속에서나마 덮치는 추잡스런 생각으로 밤을 샐 것 같았다.

퇴계로에서 하룻밤을 편히 자고 싶었다. 욕망은 참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었다. 내 나이가 그런걸 참아내기에는 너무 팔팔한것 같았다.

내가 지불한 지폐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있기만 하면 되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앳된 여자가 나를 비누거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몸을 꺼없고 마른 수건으로 나를 닦아주었다.

침대에 뉘어놓고 그녀는 뜨거운 혓바닥으로 나를 삼키고 있었다. 전신을 차례차례 삼켰다. 나를 남김없이 삼키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그녀는 어느 순간엔가 부끄러워 하기 시작했다. 나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어린이처럼 보채긴, 급하면 정식 결혼하면 되지않아
방해공작 까뒤집기위해 괭이파를 끌여들여야지

담배 한개피를 입에 물려주고 그녀는 웃었다. 핸드백 속에 나는 지폐 한장을 넣어줬다.

그녀는 하루에도 십여차례나 목욕하는 여자였다. 사내들이 잠깐씩 목욕하러 와서 자지러지게 숨을 쉬고 나가는 곳이었다. 직장인들이나 마누라의 잔소리가 무서운 사내들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데가 없는 사내들에게 안성마춤인 곳이었다.

하나님. 저 여자들에게 돌맹이를 던질 자들은 없겠죠.

매일 열번씩 목욕하는 저 여자들처럼 깨끗한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책임지고 데려다가 천사로 채용해주세요.

마달라 마리아보다 한껏 위질입니다. 마달라 마리아는 엎드려 발을 닦아주었지만 저 여자들은 전신을 닦아준다구요. 그것도 혓바닥으로 애무까지 해주는 여자랍니다.

천당에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내들이 천당가려고 아단구니 쓰느라고 이 땅이 보다 평온해질 겁니다.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시작한 것은 열흘쯤 지난 뒤였다. 그동안 비서실에서 그룹 전체에 대한 브리핑을 받거나 앞으로 해야할 일을 검토하는 일로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암행감사관 직책이란 생각한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회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이는 건 어느 회사에서든지 알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움직이는대로 사람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친절하게 안내까지 했다.

후배 세 녀석과 나는 며칠째 헛걸음질만 했다. 하청업자나 하청업체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곳이든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철저하게 방어벽을 쌓고 있다는 뜻이었다.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었다. 그렇다고 김갑산 회장이 파격적 대우를 해준 만큼 나도 파격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며칠을 더 뛰어다닌 뒤에 나는 이 그룹의 암행감사를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원인은 그룹 기획실과 그룹비서실에서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기때문이었다. 그렇지 않고는 산하 업체에서 그렇게 빤히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예정에 없던 회사에 뛰어들어가도 마찬가지의 결과밖에 얻을 게 없었다.

나는 김갑산 회장의 배포 큰 기분에 맞는 한건을 해치우고 싶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당장 파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서실과 기획실을 까뒤집어서 암행감사 방해공작의 진원을 밝히고 싶었다.

비서실장과 기획실장은 산하 기업체 사장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들이 김갑산 회장의 사위나 아들이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그룹 눈밖에 나면 당장 모가지가 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란 걸 눈치 챌 수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비서실장과 기획실장 집을 털기로 마음 먹었다.

손을 씻고 사업하는 예를 가운데 탁월한 솜씨를 자랑했던 괭이파를 끌어들였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명했지만 워낙 내가 드세게 나가니까 한건을 해치우겠다고 약속했다.

괭이파라고 하면 몇년 전까지 남의 집에 들어가 귀중한 물건을 빼오는데 일가견을 갖고 있던 조직이었다. 본래 파 이름은 고양이파라고 불려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괭이파라고 불려졌다.

신문에 난 큼지막한 절도사건은 대개 그들 괭이파의 행동이라고 점찍을 만큼 한때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던 패거리였다.

그들이 절도단을 해체한 것은 더 이상 좌짓지 않고 살겠다는 두목의 결심때문 이었다. 두목인 명준이 형은 휘하에 열쇠 전문가와 금고 전문가, 특수장비 기술자등 진짜 실력자들을 데리고 마음 먹으면 어디든 털 수 있는 배짱있던 사내였었다.

『서류뭉치와 비밀스런 것만 때줘요. 다른건 일체 건드리면 안돼요.』

내가 이렇게 부탁했다.

『들고 나오는 것보다는 사진 찍어서 필름만 주는게 낫잖아. 나 손씻고 마음 편히 사는 놈이다.』

『그래주면 더 좋겠지만, 위험할까 봐 그렇죠.』

『신경 꺼라.』

명준이 형은 껄껄 웃었다. 내가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패거리와 어울리지 않아서 배 곪고 다닐 때 명준이 형은 내 목구멍에 밥을 넣어준 사람가운데 하나였다. 명준이 형은 내가 퍽 대견스런 생각을 했다면서 아깝지 않게 나를 먹여주고 재워준 사내였다.

명준이 형 말대로 그런 일이라면 신경을 꺼도 될만했다. 그 점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기술자 왕초였다.

명준이 형이 서류를 몰래 촬영해 필름을 넘겨준 것은 일주일 쯤 지나서였다.

나는 암실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정밀하게 복사작업을 끝냈다.

내 예상대로였다.

김갑산 회장과 단독으로 부딪치기는 조직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집이거나 회사이거나 비서실장의 통제와 그의 심복부하들이 깔려 있어서 단 두사람이 마주 앉지 않고는 얘기조차 꺼낼 수 없었다.

나는 또 며칠째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회장실과 정의 전화마저 통제되고 있어서 함부로 전화질을 할 수도 없었다.

한마디로 김갑산 회장은 사람의 장막으로 눈이 멀어가고 있는 판국이었다. 저녁에 퇴근하려고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는 회장의 뒤를 재빠르게 따라갔다. 승용차 문이 열리고 회장이 도열한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나는 그 틈에 재빠르게 수행비서를 제치고 승용차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암행감사할수 없어 사표 내겠다는게 특별 보고야
밀봉된 유언장이 수정된채 보관돼 있다는걸 압니까

돌려섰던 사내들이 동시에 달려들 태세였다. 비서실장과 수행비서의 얼굴이 금새 벌개졌다.

『긴히 드릴 말씀 있읍니다.』

나는 재빨리 이렇게 말했다. 김갑산 회장이 나를 쪼어지게 쳐다보고는 이내 웃음 담긴 얼굴로 말했다.

『그래, 가자.』

회장이 이렇게 말하고 올라탔다. 수행비서가 문을 닫고 앞으로 탔다. 승용차가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다.

『칸막이를 올리시죠.』

내가 운전사와 수행비서를 의식하고 이렇게 말했다. 김갑산 회장이 버튼을 누르자 칸막이 유리가 와 와석과 차단시켰다.

〈이 차 안에 도청장치가 돼 있읍니다.〉

나는 이렇게 쓴 쪽지를 재빨리 내밀었다. 김회장 낯빛이 실룩거렸다. 그러나 그는 의연한 자세였다.

〈얘기를 계속 시키시면서 연극을 하셔야 합니다. 저를 믿어 보세요. 회장님은 일부 측근들에게 감시받으며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쓴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 김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시켰다.

『자네, 특별히 보고할게 뭔가?』

회장의 목소리는 약간 노기가 서려 있었다.

『암행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읍니다. 감사하러 나가면 저쪽에서 항상 먼저 압니다. 그것은 곧 비서실 안에 그런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넨 우리 비서실을 어떻게 알고 이러나.』

『잘은 모릅니다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전혀 암행감사를 할 수 없는 체제에서 저는 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표를 낼 생각입니다.』

『이 사람아, 안되겠군. 그런 일이라면 마땅히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하거나 사표를 내려면 낼 일이지. 젊은 사람이 예의도 없이…』

김회장 목소리는 더 노기를 띠어갔다.

〈평소 안가시던 곳으로 가시죠. 웬만한 곳은 모두 도청이 되고 있읍니다.〉

내 세번째 편지를 읽던 김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봐, 저 호텔로 가라구.』

김회장의 지시대로 자동차는 H호텔로 꺾어 돌았다. 자동차에서 내린 김회장은 수행비서에게 또 지시했다.

『꼼짝말고 여기서 기다려. 내 다녀올데가 있으니까.』

김회장은 나를 앞세우고 호텔로 들어갔다. 나는 코피 숍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김회장을 안내했다. 김회장이 성큼 성큼 따라오고 있었다.

『뒷문에 가서 택시를 잡겠읍니다. 저를 믿으실수 있겠읍니까?』

『믿겠네.』

우리는 뒷문에서 택시를 타고 다시 시내쪽으로 나왔다.

암실을 가지고 있는 친구의 아파트로 들어서며 김회장은 약간 불안한듯 주위를 훑어 보았다.

『이왕 믿으신 거 끝까지 믿어주시십시오. 오랜만에 믿을 만한 놈을 만나신 겁니다.』

김회장이 애들처럼 웃으며 따라들어왔다.

암실에서 꺼낸 확대된 사진을 펼쳐놓았다. 김회장은 안경을 바꾸어 끼고는 사진판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았다.

『이쪽 것은 비서실장의 비밀금고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기획실장의 비밀금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빼냈나.』

『제게 그런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님의 비밀금고에서라도 중요한것을 꺼다 복사해 올 수 있읍니다.』

『대단하네.』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자동차는 물론이고 집무실과 침실에까지 도청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비서실장이 한눈에 회장님을 감시하고 있읍니다. 수행비서나 운전사까지 그쪽 정보원인 셈입니다. 그리고 상속자인 아드님들이 어리기 때문에 사위들이 회장님의 가꾸신 그룹을 통째로 삼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읍니다. 기획실장은 본처 소생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읍니다. 자식이 아버지 회사를 야금야금 파먹는다는 건 상식밖의 일이라서 정밀한 조사를 해봤읍니다.』

내 설명을 듣는 김회장의 표정은 참담해 보였다.

『그 뿐이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는 이미 비서실장에게 매수된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 재작년에 작성하신 유언장은 밀봉된 채 회장님께 비밀금고에 보관된 게 아니라 이미 개봉되어 수정된 상태로 보관됐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사진은 바로 새로 작성된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유언장대로라면 사위들 앞으로 운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김회장은 천천히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가볍게 끌어안았다.

『정말 자네를 선택한 게 하늘의 은총이었네.』

『우선 뒤처리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제 직감으로는 회장님의 살해음모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건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예방조치를 취하시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비밀금고를 여신적이 없읍니다. 수행비서가 교묘하게 회장님이 찾으시는 걸 바꿔칠 수 있게 돼있읍니다. 자동차나 집무실의 도청장치는 제가 알고있는 전문가가 직접 설치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잡아보려고 했지만 몇년 전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읍니다. 제 못된 상상력으로는 도청장치 전문가는 살해되어 암장된 것 같습니다. 허락만 해주시고 저를 믿어주시다면 꼭 캐내고야 말겠읍니다. 물론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실 일은 신변보호문제입니다.』

심각한 표정의 김회장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자네 담배 있나?』

『여기 있읍니다.』

나는 담뱃불을 붙여줬다. 김회장은 길게 한모금을 빨고는 내 손을 잡았다.

『자네가 수행비서를 해주겠나?』

『저는 내막을 캐내야 합니다. 제 선배를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저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입니다. 우선 도청장치와 인사조치를 병행해서 계도적인 방패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네가 수행비서 맡게.』

『내막은요?』

『난 이제 다 산 사람이네. 사위도 자식이라네. 유언장 다시 작성할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그만일세.』

나는 어이 없이 김갑산 영감을 쳐다보았다.

(다음주에 계속)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D LIKE TO BILL TO A THIRD NUMBER.

남의집에 가서 전화를 건후 자기 집으로 요금을 물게 할 때는 일단 교환을 통해야 한다. 0을 돌린후 계속해서 본인이 걸고자하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돌리면 그때 교환이 나와서 도와 주게 된다.

교환이 나오면 대부분이 Operator, May I help you?(교환입니다. 도와드릴까요?)혹은 Operator307. (307번 교환입니다. 이때 307번은 신분 번호로서 교환마다 번호가 다르다) 이라고할것이다. 그때 I'd like to bill to a third number. (제삼의 번호로 요금을 물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교환이 다시 What is the number, please? (몇번으로 해 드릴까요?) 한다. 이때 본인이 원하는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이상은 coin phone(공중전화) 가 아닌 경우이고 만일 공중전화를 사용하면서 이같이 자기 집이나 제삼의 번호로 요금을 징수케 할 번호에 누가 지금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교환의 도움을 통해 전화를 걸게되면 요금이 더 비싸진다는 것이다.

A : Operator 307. May I help you?
B : Yes. I'd like to charge this call to my home phone.
A : What is your name and number, please?
B : My name is R. C. Park. My number is 262-1439
A : Will someone be at that number now to accept the charge?
B : Yes.
A : 교환 307번입니다. 도와드릴까요?
B : 네. 이 전화 요금을 우리집 번호로 물게하고 싶습니다.
A : 성함과 전화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B : 제 이름은 알. 시. 박이고 전화번호는 262—1439입니다.
A : 요금을 부담할 사람이 지금 그 번호에 있읍니까?
B : 그렇습니다.

※bill : 청구서, 동사로서는 「청구서를 보내다」
accept the charge : 요금을 부담하다.
(발음) operator 「오퍼레이러」 가 아니고 「아퍼레이러」. 예) comedy 「카머디」 socrates 「싸크리티스」

STICK AROUND.

미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는분이 미국TV프로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것을 들었다. 한국에서는 프로가 다 끝난다음에 나오는 광고가 미국에선 prime time (황금시간)에 방영되는 대부분의TV program일수록 프로 중간중간에 너무나 commercial (광고)이 자주 있기때문이다.

어쨌든 TV를 보고있노라면각방송국에서는 시청자를 놓칠까봐 진행자가 나와서 Stick around. We'll be back. 이라고하는것을 듣게된다.

Stick around.란 stay nearby (근처에 머무르다) not leave (떠나지 않다)라는뜻으로 허물없는 사이에 사용되는 표현 (informal expression) 이다. 그러니까 TV진행자가 한말은「곧 재미있는 프로가 계속되니까 광고가 나오더라도 다른 channel로 돌리지 말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차편이 없는 친구가 가겠다고 나서니까「기다리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할 때는 Stick around. I'll give you a ride home. 하면될 것이고, 떠나려는 친구에게 「저녁이 곧 준비되니까 먹고가라」고 하는 경우는 Stick around. Dinner will be ready soon. 같이하면된다.

RADIO나 TV 프로의 진행자가 광고가 나오기전에 하는 말중 좀더 점잖은 표현으로는 We'll be back after this message. (이 전해드리는 말씀이 끝나는 즉시 다시 진행하겠읍니다) 혹은 Stay tuned. Stay with us. 가 있다.

—I'm going home now.
—Stick around. We're going to watch "Dallas".
—Is that on tonight?
—Yes, it's Friday.
—OK, I'll stay for the show.
—Good, We'll make some popcorn.
—지금 집에 가려고 해요.
—기다려봐요, 댈라스를 봐야죠.
—그게 오늘밤에 하나요?
—네, 금요일예요.
—좋아요, 기다리죠.
—좋습니다. 팝콘 좀 만들겠어요.
＊Dallas: 매주금요일에 방영되는 미국 인기TV드라마.
Is that on tonight?: 오늘밤 그게 TV에 방영되나요? on은 방영되다의 뜻. 예 : What's on TV tonight? (오늘밤 TV에 무엇이 방영됩니까?)

본 칼람 남당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 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人的控除 12萬원으로

敎育費공제 (月給與額) 70萬원

稅法小委 稅法개정 一括政治타결

국회財務委稅法심사小委(위원장 鄭[illegible]의원)는 25일 소득세의 人的控除額을 현행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法人稅의 정부案 23%와 民韓黨案 20%에서 22%로 수정합의하는등 그동안 難航을거듭하던 각종 稅法案을 일괄 합의했다.

2次 활동時限의 마지막날인 이날 稅法小委는 막바지 절충끝에 이같이 합의, 타결을 봤는데 정부가 제출한 교육세법 新設案과 民韓黨이 제출한 附價稅법개정안은 26·27양일간 열리는 財務委전체회의에 회부, 처리키로 했다.

所得稅 최고 60%로 올려
근로所得공제 年間 88萬~百50萬원
法人稅率 課標 5千萬원미만 22%
特消稅 小型컬러TV·냉장고 28%로인하

◇국회財務委의 稅法小委는 15일간 難航을거듭한끝에 各種稅法案에 대한 절충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稅法案확정에 따른 새해예산안 削減幅에있어 民韓黨측은 1천3백58억원을 주장하고있는 반면 정부측은 稅收減額이 8백억원線에 미친다고 엇갈린 주장을보이고 있다.

이날 稅法小委는 소득세의 人的控除額부분에서 현행 11만원에서 1만원을 인상시키면서 이부분을 배우자공제액인 月2만5천원을 3만5천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illegible]

이외의 稅法小委가 합의한 各稅法 [illegible]

〈所得稅〉 [illegible]

〈特別消費稅法〉 [illegible]

〈法人稅〉 [illegible]

뉴욕서 없어졌다

外換銀에 오다 증발한 2百萬弗

리퍼블릭銀→現送社→KAL싣기前

미국 뉴욕 리퍼블릭내셔널 은행에서 한국외환은행에 보낸 미화 2백만달러가 도중에 증발, 미FBI(미연방수사국)가 본격수사에 들어갔다. FBI의 수사는 이사건을 내사한 한국경찰의 조사결과와 리퍼블릭 내셔널은행측의 자체감사및수사의뢰에 따른 것인데 아직까지 사건에대한 단서는 밝혀내지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白紙紙質보아 적재前발생"

한국경찰이 FBI에 수사를 요청을 한 근거는 사건 발생직후 한국외환은행, 보험회사, 내셔널뱅크 [illegible]등의 자체조사등을 종합한결과 ①뉴욕의 케네디공항에서 현금을 인수한후 한국에도착하는동안에는 범행가능성이 희박하고 ②현금을 담았던 대의 납봉과 현금을 가장한 백지의 지질이 한국에서는 찾아볼수없는 사실등을 확인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미국FBI는 브링크스(BRINKS)현금운송회사가 현금을 인수받은 10일하오4시30분(현지시간 이하같음)부터 KAL측에게 인계한 11일상오2시 10분사이에 범행이 이뤄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주미취재팀의 확인에 의하면 11일이 미국추수감사절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은행측은 전날인 10일하오 브링크스 운송회사에 현금을 전달하고 하오4시30분 은행문을 닫았다는것. 따라서 미국FBI는 범인등이 운송회사가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인수받은 시각부터 KAL조종사에게 인계하기까지 9시간40분동안에 범행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같은사실을 놓고 국제범죄전문가들은 이사건이 주말을 노리는 西歐의 강력사건과 닮았고 범인들이 은행의 백과같은 현금운송백과 2백만달러에 해당하는 1백달러지폐크기의 백지를 미리 마련했으며 현금운송시간과 루트를 정확하게 파악했던점등으로 미루어 고도로 훈련되고 잘조직된 2~3명이상의 국제범죄조직의 범행으로 추정하고있다.

한편 한국경찰은 FBI와는 별도로 KAL승무원들의 관련가능성여부를 조사했으나 용의점을찾지못했으며 [illegible]

FBI現送社에 搜査집중

한국 경찰과 美銀등 의뢰 國際조직·美銀行직원관련여부도

【뉴욕=金泰雄특파원】현송관계를 잘아는 이곳 은행가 들은 한국경찰이 FBI로수사의뢰를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달러가 종이로 둔갑한것은 金浦가아니고 뉴욕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현송은 뉴욕 맨해턴중심가 5번街452번지40街에 있는 리퍼블릭·내셔널·뱅크·오브·뉴욕이 운송을 브링크스(BRINKS)장갑운송회사와 KAL, 그리고수령은 서울외환은행본점으로 되어 있어 수사의초점은 운송을담당한 브링크스社로 집중되고 있다.

브링크스社는 방탄장갑트럭(Armored Truck)으로 현금수송서비스를하는 회사로 1859년 창업이래 뉴욕의 금융기관 현금수송을대행하고있는 대규모회사. 브링크스와 비슷한 크기의 회사가 뉴욕에만 해도 6개소가있으나 중요은행들은 브링크스 회사와 거래하고 있다.

현찰을 수송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브링크스 장갑트럭은 권총으로 무장한 운전사와 경비원두사람이 1조가되어 현금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뉴욕중심가에서 30마일쯤 떨어진 나뉴엣이라는 작은도시 쇼핑센터에서는 브링크스회사 트럭이 1백여만달러를 무장강도에게 빼앗겼으며 브링크스의 운전사와 경찰관이 강도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현송수송은 얼마전까지만해도 뉴욕에 있는 한국은행[illegible]이 해왔으나 별사고가 없었다. 이번 사건과 외환은행뉴욕지점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사건에대해 기자의 질문을 받은 외환은행뉴욕주재 이사겸 지점장인 洪世杓씨는 "現送은 거래은행 어디서나 할수있다. 사고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황당한 일이다."

이번사건은 리퍼블릭·내셔널·뱅크·오브·뉴욕과 외환은행 본점과의 직접 거래였던것 같다.

換銀보고 늑장 發生 12일뒤에
은행側피해없다고

외환은행은 사건발생 12일이 지난 24일하오에야 재무부에 보고해왔다. 이날 하오5시께 朱仁基외환은행 전무는 元應學재무부감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내용을 알려왔는데 재무부측은 통보를 받고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토록 지시했다.

한편 鄭春澤외환은행장은 25일상오10시반부터 재무부회의실에서 열린 은행장회의에서 사건내용을 李承潤재무부장관 은행장들에게 설명했으며 외환은행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 보고가 늦었다고 밝혔다.

鄭행장은 또 리퍼블릭 내셔널뱅크와 고액권 현찰매입계약을 체결할때 현찰이 외환은행 금고에 도착할때까지의 모든책임은 상대방은행에 있도록 계약했기때문에 이번 사건에따른 은행측피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사무실텅비워
現送업무 맡았던 美銀홍콩 사무소

【홍콩=金泰八지사장】2백만달러 송금업무의 사무처리를 맡았던 리퍼블릭 내셔널 뱅크 홍콩사무소는 홍콩섬 中環의 콘너트빌딩 606호에있다. 홍콩본행의 동남아지역이사이자 소장인 사카파씨와 부소장 로버트·바렌틴씨는 지난주 싱가포르에 출장, 25일까지도 돌아오지 않고있다. 10여평크기의 사무실 [illegible]

◇白紙확인하는순간 2百萬弗행낭 뉴욕리퍼블릭 내셔널은행 홍콩주재 부소장 쿠르트·앤더슨씨가 사건직후 급히내한, 외환은행에서 문제의 가짜달러행낭을 확인하고 있다. 행낭속에는 같은크기의 백지만 들어있었다.

教育稅 수정案 共同發議 논의
3黨總務들

民正黨의 李鍾贊, 民韓黨의 高在淸, 국민당의 李東鎭총무는 25일하오 총무회담을 열고 82년 예산안 삭감액수와 교육세 수정안공동發議문제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民正·국민당측은 재산세부가를철회한 교육세수정안을 공동발의 하자고 주장했으나 高民韓총무는 「목적세신설을반대하는 黨論에 따라 공동발의에 응할수 없다」고맞서 타결을 보지못했다.

이에따라 교육세는 民正·국민당對 民韓黨의 表對決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地方議會구성 83年末까지
民韓 法改正案제출

民韓黨은 25일 地方自治制의 早期실시를 골자로한 地方自治法改正案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개정안을 소속의원82명 全員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地自法개정안은 서울특별시및 釜山·大邱·仁川등 3개直轄市와 9개道에 오는 83년12월 31일까지 地方議會를 구성토록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社会漫評

불만한프로도 없던차에…
새 「수사극」이구나…

馬事會 非違로 48명 각종懲戒

高建농수산장관은 25일 국회農水産委에서 「한국馬事會의 非違사건조사보고」를 통해 『그동안 人事, 懲戒, 사무, 준공검사, 물품관리부문에서 15件의 不當사항을 적출, 48명에 대해 人事조치와 問責을 했다』고 보고했다.

五輪지원 決議案

民正·民韓·국민등 3개정당과 議政同友會는 25일국회올림픽支援特委구성 결의안(제안자 尹碩淳의원)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地平線

옛날엔 陽精이 해가 되고, 해가 나뉘어서 별이 되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해를 나타낸 日자밑에 生을써서 별성(星)자를만들었다. 고대 사람들은 태어나면 누구나 자기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殞命하면 이별이 흘러가듯 떨어지는것으로 알았다. 지구상에 남은 이流星의 조각이 隕石이다. 또 流星을 영어로는 Meteor라고 하는데 하늘돌이 있다는 뜻을가진 희랍어에서 나왔다.

▼한데 6·25격전지로 알려져있는 楊口의 펀치볼이 세계최대 隕石盆地로 판명돼 화제를 모으고있다. [illegibl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서 울
여 행 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 동 주

소 잃고 난후 외양깐 고치시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蘇、유럽配置 核明細書 전달

브레즈네프、슈미트와 3차會談서

中距離미사일은 5百14基
核爆擊機 4百61대등포함

【본(西獨) 24日UPI·합동=聯合】 西獨방문 3일째를 맞은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와 헬무트·슈미트서독수상은 24일 9시간에 걸친 두차례의 양국정상회담에서 많은 異見이 노출됐음을 시인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西대화는 반드시 계속돼야한다고 선언했다。 이와함께 브레즈네프는 주로 양국의 쌍무문제가 집중 토의된 슈미트수상과의 3차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소련이 유럽에 배치하고 있는 핵미사일의 숫자를 미사일종류별로 명시한 핵무기체제명세서를 슈미트수상에게 전달했다고 브레즈네프의 대변인인 레오니드·자미야딘이 밝혔다。

많은異見에도 對話계속 合意

브레즈네프는 3차회담에서 소련이 신형 SS20미사일을 새로이 배치함으로써 유럽 군사력균형을 존중하기로 한 지난78년의 협정을 위반했다는 슈미트수상의 비난을 일축하면서 소련은 현재 중거리미사일 5백14基(지상발사용 4백96基 해상발사용18基)와 중거리 핵병기범주에 속하는 폭격기 4백61대등모두 9백75대의 핵무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協商만이利得" 미즈 白堊館고문

【워싱턴24日UPI=聯合】 오는30일의 對蘇군축회담을 앞둔 레이건美행정부는 24일 西獨을 방문중인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군축과 관련한 본발언을 고무적인 조짐으로 평가했다。

에드윈·미즈 대통령 수석보좌관은 이날 한TV회견을 통해 『브레즈네프의 발언은 크렘린이 미국과 진지한 협상을 개최하는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사실을 깨닫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했다。

미즈보좌관의 이같은 평가는 레이건 대통령의 제로·옵션(0의선택) 제의에 대해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인 브레즈네프의 발언에 대해 미국측이 지금까지 보인 반응중 가장 공정적인 것이다。

오는 30일의 제네바회담에서 미국대표단을 이끌 폴·니츠수석대표는 여타 고위대표들과 브레즈네프의 최근발언을 예의 검토하고있으며 국무성은 곧 브레즈네프의 발언에 대한 공식반응을 발표할 예정이다。

◇紀念사진첩 받아보며 西獨을 방문중인 蘇聯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왼쪽전면)가 24일 마지막 회의석상에서 헬무트·슈미트西獨수상으로부터 본방문기간동안 찍은 사진첩을 증정받고 이를 들여다보고있다。【본25日UPI電送=聯合】

世界最大 에너지工場 건설
蘇·西獨 妥當性 조사계획

【본24日AP=聯合】 소련과 서독은 24일 금세기말에 소련의 시베리아부근 칸스크·아친스크에 세계최대의 거대한 에너지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동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20일체결된 서독의 對蘇천연가스도입협정과 소련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서독방문과 때맞추어 내려진 것으로 양국 경제관계가 東西관계의 안정요인이라는 양측의 신념을 한층 강화시켰다。

슈미트 서독수상과 소련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는 지난23일에는 소련과 교역중인 1백50개 서독회사대표들로 구성된 서독東西위원회회원들과 회담한데 이어 양국경제정책담당자들 배석시킨 가운데 또다시 24일 회담했다。

西獨、蘇明細書허위성分析
西方보다 많은 3千8百25基 보유

【본24日AP·合同=聯合】 레오니드·브레즈네프 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장겸 공산당서기장이 24일 헬무트·슈미트 서독수상에게 제출한 소련의 유럽배치核무기체제명세서는 소련이 도합 9백75基의 核무기발사체제를 유럽에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밝히고있으나 소련이 실제로 유럽에 배치한 각종 核무기체제는 무려 3천8백25基에 달한다고 서독의 核무기전문가들이 24일 말했다。

이 전문가들은 미국위성 감시체제에 따르면 소규모의 영국및 프랑스미사일을 제외하면 도합 5백60기의 미국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데 반해 소련은 총3천8백25기의 미사일발사체제를 유럽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들은 또 소련은 미국에 배치된 대륙간 폭격기와 항속거리가 소련영내에 까지는 미치지못하는 유럽배치 단거리 폭격기까지 서방측 미사일발사체제에포함시켜 그수를 크게 늘려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문가들은 소련이 이번 核무기체제 명세서에서 소련의 지상발사용 미사일 수가 4백96기라고 밝혔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측은 소련이 1백75기의 신형SS20 다탄두미사일과 3백50기의 SS4및 SS5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핵미사일만도 도합 5백25기를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지금까지 추산해왔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소련은 이밖에 75기의 SS20미사일을 중공을 향해 배치시키고 있으나 이들 미사일은 언제든지 유럽을 향해 발사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련은 SS20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한 대신 구형인 SS4및 SS5미사일은 상당수 철수시켰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구형 미사일의 철수가 매우 느린템포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波에 食糧폭동…다수 死傷
求得難에 분통 商店난립 衝突

【바르샤바24日UPI=聯合】 식품등 소비재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폴란드에서 최근 상품구득난에 분통을 터뜨린 소비자들이 상품가게에 난입, 점원들과 충돌하는 바람에 최소한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한것으로 24일 알려졌다。

1백3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폴란드 점원연합회대표들은 최근 일부 도시에서 상품부족난에 절망감을 느낀 일부 격노한 소비자들이 상품가게에 몰려와점원들과 충돌, 3명이죽고 수십명이 다치는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점원대표들은 24일 바르샤바에서 정부대표들과 회담을 열고、점원들의 신변보호문제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점원들은 언제라도 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의 사영농민노조 대변인은 25일 열릴 농민노조와 정부간의 협상에서 공산품판매를 육류공급과 연계시키려는 정부정책이 철회되지 않을경우 현재의 농민파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정부공인 농민단체도 정부의 그같은연계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蘇서도 최악의 騷擾

【런던23日AP=聯合】 수천명의 소련군중들이 지난10월 소련 북부 코카서스의 한지방수도 오르조니키즈에서 지방공산당본부를 포위、3일동안 경찰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으며 이것은 소련에서 25년만에 최악의민간소요였다고 23일 파이낸셜·타임즈紙가 보도했다。

이신문은 모스크바에서 들어온 보도들을 인용、이폭동이 10월23일부터25일까지 사흘간 계속되었으며 폭동이끝난다음날에는 수송파업이 뒤따랐다고 전했다。

앨런스캔들 새局面으로
"特別檢事임명 調査하라"
民主黨上院의원18명 法務長官에 서한

【워싱턴24日AP·合同=聯合】 레이건 美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리처드·앨런 국가안보담당보좌관과 데이비드·스토크먼예산국장을 경질할 것이라는소문이 워싱턴정가에 나돌고있는 가운데 18명의 민주당상원의원들이 일본의 여성잡지 「主婦의벗」으로부터 기자회견 주선사례금조로 1천달러를 받은 앨런보좌관의 비위사실을 조사하기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함으로써 앨런스캔들은 새로운국면으로 접어들고있다。

18명의 민주당소속 상원의원들은 24일 윌리엄·프렌치·스미드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현재 법무성이 하고있는 예비조사과정에서 앨런스캔들의 내용이 상당히 근거있는 것으로 밝혀질경우 법무장관은 이사건의 본격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의무가있다』고 촉구했다。

中共의 공식國名에
곧 「聯邦」挿入할듯

【臺北24日合同=聯合】 중공은조만간 北京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고 중공의 공식국호를 현재의 「中華人民共和國」에서 「中華人民聯邦共和國」으로 개칭할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중국 관리들이 24일 말했다。

자유중국집권 國民黨중앙위원회 本土문제부의 파이·완·시엔부장은 이보다 앞서 23일 자유중국국회의원들에게 중공이 그들의 국호를 이같이 바꾸려는 목적이 중공의 中國통일음모에 따라 臺灣을 本土에 귀속시키려는데 있다고 말했다。

◇美·埃 공동機動훈련 끝내고 이집트 서부사막에서 합동기동훈련을 마친 미국과 이집트군인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있다。【와디나트룬(埃) 24日AP電送=聯合】

中性子彈
英제인 武器年鑑
衛星공격에 效果 海上戰서도 威力

【런던24日UPI=聯合】 중성자탄은 지상및 해상목표들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미래의 우주전쟁에서 적국의 위성격추에도 중요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런던에서 발행된 「제인」무기연감 81~82년도판이 24일 밝혔다。

이 연감은 美·蘇양국이 위성요격체계개발계획에서 중성자기술을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면서 지금까지는 중성자탄에대한 공개논쟁이 탱크를 주목표로하는 중부유럽戰場의 테두리안에서 전개돼왔으나 해상에서의 중성자탄사용도 군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말했다。

中共서 臺灣에 學術交流 제의

【홍콩24日合同=聯合】 중공학자들은 臺灣과의 관계를 학문적 차원에서 정상화하기위해 학술대표단의 교류와 장기공동연구계획등 광범위한 학문활동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의했다고 중공의 관영 新華社통신이 24일 보도했다。

新華社통신은 중공 최고학술기관 中國科學院의 간부회의가 이제의를 승인했다고 밝히고 중공과학자들은 이제의에서 「臺灣학자들의 본토방문을 환영」하고 가능한모든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으며、중공학자들도 「언제든지 臺灣을 방문、친지와 친구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며 학문적 교류를 가질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한것으로 전했다。

日 非核3원칙 現實化추구
美下院外交委長

【東京24日=聯合】 최근 일본의 방위비를 GNP(국민총생산)의 1%수준까지 올리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한바 있는 재블로키 美하원외교위원장은 24일 『본인이 일본방위비의 증액을 촉구한 것이나 한국이 안보적차원의 경제협력을 일본에 요구한것은 모두똑같은발상에서 나온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이곳에서보도되었다。

메아리

과학이 지배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數의 개념」을 모르는 종족이 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 브라질의 남비콰라族은 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종족엔 「그것들은 서로 똑 같다」는 뜻의 말만 있다고 한다。

수의 개념은 「문명의 母胎」라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의 기초는 수학이다。 현대과학의 총아로 등장한 컴퓨터가 인간의 수학적 두뇌를 기계화 시킨것으로 보아도 틀림없을것 같다。

현대수학교육은 「계산의 기능보다 「수학적논리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교 어린이들조차 수의 계산은 전자계산기에 의존하려고 달려드는 상태다。 미국과 일본에선 「논리의 이해」라는 수학교육이 너무 어렵다는 도전을 받은지 오래다。 그래서 계산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했다。 전자계산기가 계산「능력」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은 10여년전부터 주산교육을 강화했고 미국에선 筆算에 관심을 쏟는다고 한다。주산은 추상적인 수리를 구체적으로 이해시켜 준다。 일본엔 지금 10만여곳의 주산학원이 성업중이라고 알려졌다。

暗算과 電算

탁월한 컴퓨터도 그것을 조작하는것은 사람이다。 미국은 최근 수학교사의 기근으로 속을 썩이고 있다。 기업에서 컴퓨터를 많이 도입하자 대우 나쁜 수학교사들이 빠져나가 일손부족 현상을 드러냈다。 미국수학교사협의회에선 몇년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일본에서 며칠전 열렸던 제1회계산기능세계 제1결정전에서 한국의 암산두뇌가 전자계산기를 누르고 「제1의 영광」을 누렸다。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도 오를 것이다。 20대 재원의 암산능력이 전자계산기와 주산을 제치고 초인적 속도로 정답을 맞춰 깜짝 놀라게 한것이다。

지난 여름 서울에서 열렸던 제5회 국제계산기능대회에서도 우리 인간컴퓨터가 1위를 차지한바 있다。 이번 일본에서 우승한 李春德양은 76년 제1회계산기능대회에서 당시 주산 10단의 실력으로 당당히 정상에 올랐던 주인공이다。 그의 머리엔 언제나 주판알이 꽉차있다고 한다。 오늘의 주산교육은 옛날처럼 기능습득위주가아닌 계산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둔다。 東京의 영예는 바로 이런 교육효과의 결실이라는데 주목해야 할것이다。

히드 英前首相밝혀
세계 최초民間情報社 발족
美CIA에 맞먹는 規模로

【런던24日UPI·AP=聯合】 전세계의 경제및 정치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기업인들에게 제공하는 세계최초의 민간정보기관인 「국제조사연구정보시스템」(IRIS)이 새로 발족한다고 에드워드·히드 前영국수상이 24일 밝혔다。

히드 前수상은 이날 런던에서 美저명언론인 앤더니·스타우트씨등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IRIS의 역할은 전세계로부터 정치·경제정보를 수집、이를 컴퓨터로 분석및 분류 처리하여 전세계 기업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히드前수상은 美중앙정보국(CIA)에 필적할수있는 이 IRIS가 美워싱턴 남쪽 버지니아주 크리스털市에 본부를 두고 전세계에 광범위한 정보망을 두게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은 IRIS를 이끌어갈 최고위기구가될 국제자문위원회 회장직에 취임할 것이라고 밝히고 7명으로 구성될 IRIS자문위에는 로버트·맥나마라前세계은행총재 로데리고·보테로前콜럼비아재무상및 장·프랑스와·드니오 前프랑스무역상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式 홈모니터 최근 일본에서 개발된 가정용 컴퓨터 홈·모니터(가정감시기)。 일본의 건축청부업자가 고안한 이 컴퓨터장치는 사용자가 조정센터에 있는 버튼만 누르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중 원하는것이 작동을 시작하며 화재나 가스누출 또는 도둑이 들었을경우에는 경고의 벨이 울리게되어있다。【UPI=聯合】

日서 臨床성공
초기의 胃癌과食道癌은 레이저光으로 完治가능

【東京=宋孝彬특파원】 조기에 발견된 위암과식도암은 수술을 하지않고도 레이저광선만으로 완치할수있다는 사실이 일본 쓰꾸바(筑波)대학연구팀의 임상실험에 의해 밝혀져 주목되고있다。

25일 東京에서 열린제4회 국제레이저외과학회에서 하끼다(峪田隆夫)교수등 쓰꾸바대학연구팀은 지난2년동안 60대이상의 조기암환자 6명을 내시경에 조립된 레이저광선치료기로 완치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4명의 노인환자는 폐와심장이 허약해 수술이 불가능했고 2명은 수술받기를 거부해 부득이 레이저광선치료를 시작했는데 출력 40W의 레이저광선을 1회에 0.5초씩 2~3일에서 1주일 간격으로 2개월 치료한 결과 위암세포가 없어지고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완치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암이 임파선으로 옮겨진경우에는 레이저광선치료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으며、직경 1.5㎝ 이내의 작은 암부위일 경우 완치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外信안테나

◆核실험 恒久的금지촉구 유엔총회정치위원회는 24일 지구상에서 모든 핵폭발실험을 항구적으로 금지하는조약을 체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총회정치위는 이날 핵폭발금지조약체결 결의안을 찬성1백3、반대2(미국과 영국)、기권21로 통과시키면서 이조약은 핵확산금지와 더나아가 군축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중요한 것이라고 선언했다。【유엔本部=AFP】

◆말聯 航空대표단 來韓 리·산·춘 運輸相이 이끄는 말레이지아 정부대표단이 24일 말레이지아와 한국·일본간의 항공협정을 마무리짓기위해 한국및 일본방문길에 올랐다。

30일 서울을 방문、한국·말레이지아 양국간에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를본 양국항공협정을 마무리짓게 된다。【콸라룸푸르=AP】

海外토픽
애덤즈가 가장有能
★美서歷代國務長官評

헨리·키신저、딘·피셔 조지·마셜등 3명의 美前국무장관들이 美역사상 가장 유능한 10대국무장관에 포함된것으로 24일 발간된 한 잡지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24일 발간된 아메리칸·헤리티지誌 12월호에 실린 한 여론조사결과 56명의 美역대 국무장관중 가장 유능한 국무장관 10명과 가장 무능한 국무장관 5명의 명단은 다음과같다。

◇유능한 10대국무장관 ①애덤즈 ②윌리엄·시워드 ③해밀턴·피시 ④찰즈·에번즈·휴즈 ⑤마셜 ⑥에치슨 ⑦키신저 ⑧대니얼·웹스티 ⑨토머스·제퍼슨 ⑩존·헤이

◇무능한 5대국무장관 ①셔먼 ②로버트·스미드 ③엘리후·워시번 ④덜레스 ⑤윌리엄·브라이언【뉴욕=AP】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SHANGHAI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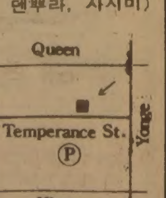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275-0702 오 영 림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368-2470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416) 222-9480

MARY KAY

여성의 아름다움은 현명한 화장품 선택에서! 메리케이는 가장 품위있고 저렴하며 어떤 타입의 피부에도 소망을 이루어 드립니다.
X-마스 선물용 스페셜 페캐지가 다양하게 나왔읍니다.
(Free wrapping + delivery)
겨울철 피부미용 상담환영
파타임 원하시는 분은
270-4175로 연락요망
Sales Director
김 진 아

김 진 아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極秘作戰빰친 國際版 네다바이

200萬달러 증발 電光石火로 바꿔치기

007작전처럼 치밀하게 진행된 국제판 네다바이 사건이다.
이같은 거액을 우리나라은행이 네다바이 당한것도 처음이지만 완벽한 범행준비와 빈틈없었던 범행수법이 마치 외국TV수사물을 보는듯한 느낌이다. 이사건이 발생 13일만에 뒤늦게 밝혀진것은 한국측의 손해가 없는데다가 미국 리퍼블릭 내셔널은행측이 「보안」을 유지해줄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손해가 없으니 다행한 일이지만 미국 FBI의 수사솜씨에 거는 기대는 그어느사건 보다 크다.

발생 미국은행이 서울 외환은행으로 화물탁송한 미화 2백만달러(한화 약14억원)가 백지뭉치로 바뀐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 12일상오11시45분, 서울외환은행본점외환부송금실이었다.
탁송해온 4개의 납봉인을 개봉, 겉으로 드는 순간, 달러대신 빳빳한 백지다발이 쏟아져 나온것.
아연 실색한 鄭부장은 이순간 나머지 4개의 행낭개봉작업을 중단시키고 이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은행측은 상오11시46분 당초 송금을의뢰했던 리퍼블릭 내셔널 뱅크의 홍콩사무소에 텔렉스로 연락하고 13일상오 치안본부를통해 관할 서울中部경찰서에 입회를 요청했다. 연락을 받은 RNB 홍콩사무소장 K.앤더슨씨가 13일하오4시30분 내한하자 하오8시 서울中部경찰서 金正彩경비계장, 보험회사로이드·런던의 한국대리자인 協成해운 金基學검정부장(35) 및 대한항공공항화물지점 朴상방과장과 은행의 외환부장 鄭運晙씨(43)등과함께 나머지 4개도 개봉, 모두 가짜임을 확인하고 입회자가 확인서사본1개씩 5부를만들어 나누어 가졌다.

현금 네다바이당한거액의 미화는 리퍼블릭 내셔널뱅크(RNB·美뉴욕맨해턴5번街452)가 새벽 2시10분(현지시간) 1백달러짜리로 된 1만달러묶음 2백뭉치를 5개의 행낭에 40뭉치씩 나누어넣어 뉴욕 케네디공항에서 대한항공 보잉747점보화물기편으로 탁송한것으로 金浦공항을 거쳐 12일상오 外換은행본점에 도착했다.
당초 이돈은 외환은행측이 한국시간 13일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RNB사정으로 하루앞당겨 12일에 보냈다는 것.
外換은행은 해외여행자용으로 1백달러짜리 고액권을 수입한것인데 일단 현금을받지못했고 계약조건이 금고도(金庫渡)여서 금고에 넣기전 가짜임이 밝혀짐에따라 수입대금의 결제를 하지않아도된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한 외화수급차질은 없다고 말하고있다.

이돈은 비행기출발 10분전인 지난11일 상오2시께(현지시간) 용역회사에서 나온 무장호송원3명에 의해 케네디공항에 실려갔으며 KAL 097편 점보화물기 기장인 崔正滿씨(47)에게 기내에서 인계돼 조종실 기장석에 실렸다.
崔기장은 비행기를 예정대로 이륙시켰고 재급유예정장소인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공항에 11일상오4시40분(현지시간) 도착했다.
페어뱅크스공항은 美국내선 전용비행장으로 태평양연안도시 앵커리지로부터 北쪽으로 6백㎞쯤 떨어진곳. 崔기장과 郭진호부기장, 운항기관사등 조종팀은 이곳에서대기중이던 교대팀의 기장 林東善씨(53), 부기장 沈모씨, 운항기관사 李모씨에게 이 작전을 인계했다.
林기장은 예정된 상오5시30분 페어뱅크스 공항을 이륙, 서울로 향했다.
한편 KAL 金浦공항 화물지점장 金光昊씨에 의하면 이번과같은 현금수송은 한달에 1~2회꼴 있는데 상대국에서 돈이 출발하기직전 KAL 뉴욕화물 담당직원이나 화물지점장에게 출발사실이 통보되며 KAL측은 다시이를 비행기가 출발과동시에 외환은행 외환부장에게 통보하게 된다는것. 외환은행측은 KAL 金浦화물지점에 현금행낭을 찾을 은행직원의 신상과 사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가짜행낭 행낭은 폭2㎝ 길이5㎝ 두께5㎜ 크기의 납봉에 의해 봉지가 묶여져있는데 속에든 가짜 지폐는 다발로 묶지않고 쌓기만한채 양쪽에 나무토막을대 고정시켰다.
행낭무게는 진짜의 23㎏보다 2㎏가벼운 21㎏이었다.
또 이백지는 엷은청색의달러크기였으나 달러보다 약간 두꺼운 지질이었다.
한편 나머지 행낭 4개는 RNB측에서 가져갔는데 행낭은 가로50㎝ 세로15㎝, 높이 5㎝의 비닐에 싸인것을 다시 흰색마대에 넣어 실로 입구를 묶고 납봉인을 했으며 확인결과 봉인에찍힌 숫자가 RNB측에서 소지한 숫자와 전혀 달랐다.
또 봉지부분의 납봉과 겉은 청색의 지폐모형 종이가 한국에서는 본적이 없는것임을 확인했다.
그런데 납봉의 아라비아숫자는 계약에 따라 외환은행에 통보하지않았다는 것으로 송장(送狀)에는 갯수·금액 및 무게만 기재돼있다.

수송작전 현금수송작전은 국제관례대로 극비사항이었다.
바이노큘러 오퍼레이션(쌍안경작전)이란 암호명이 붙여져 관계자들간에 암호로된 전문이 오가면서 약속됐고 현금의 안전을 위해 돈은 관계자들사이에 코인(coin)으로 호칭되며 공항에서 통관절차를 밟을때도 그렇게 통했다는것.

수사한계 한국의 법률상 美FBI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사활동을 벌일수는 없다. 주권침해가 되기때문.
우리경찰도 마찬가지입장이나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통해 미국측에 수사협조와 수사의뢰를 할수가 있다.
우리나라와 美國은 범죄인인도협정 또는 상호협력협정등 적극적인 협조나 강제구속력을 지닌 협정을 맺은 일은 없으나 78년 美국무성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경우 美國내의 한국인에 대한 범죄수사를 돕겠다는 공문을 보내와 이후 거액을 사기하고 美國으로 도주한 한국인의주거를 통보해 주는등 한국경찰의 공조요청에 협조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문제의 달러뭉치가 만에하나 한국영내에서 바꿔치기 된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내수사는 한국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한편 柳興洙 치안본부장은 25일 이사건 수사와 관련, 美FBI요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실은 없으며 외사경찰이 이들과 공조수사를 벌인일도없다고 밝혔다.
또 납봉이나 지질을 검사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들은 한국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것들로 범죄가 미국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뒷받침하고있다.

미스터리 「뉴욕 9시간40分」

損害·책임질일 없다

鄭春澤行長 美貨증발사건에 밝혀

『한마디로 말해서 外換銀行과는 아무런 관계가없읍니다』 ─2백만달러라는 거액이 깜쪽같이 증발해버려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돈을 수입해온 당사자인 외환은행은 손해볼 일도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고 鄭春澤행장은 말했다. 現送계약이 金庫渡조건으로 돼있기 때문이라는것.
『와야할돈은 안오고 종이뭉텅이가 인도됐으니까 계약자체가 무효』이고 이런 사실을 리퍼블릭·내셔널·뱅크에 통고했다고 鄭행장은 밝혔다. 리퍼블릭·뱅크와 리퍼블릭이 보험가입한 로이드·인터내셔널, 수송책임기관인 KAL과 외환은행, 경찰등 관계자가 공동으로 입회한가운데 현송행낭이 개봉돼 그 속에 돈이 아니라 백지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론의 여지가없게 됐다고 鄭행장은 말했다.

現送계약은 金庫渡조건

現金송환·警備·인도조건 공개입찰붙여 들여와

金庫渡조건이란 수입키로 계약한 현찰이 이쪽은행 금고에 착오없이 入庫완료돼야만 계약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계약방식이고 현찰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현찰수출회사(리퍼블릭·뱅크)와 보험회사(로이드) 수송회사(미국의 무장現送會社와 KAL)등이 지게 돼있으므로 수입자(외환은행)는 눈곱만한 손해라도 볼 일이 없으며 책임질 일도 없다는 것이 鄭행장의 설명이다.
외환은행은 12일 상오11시30분 운반돼온 현송배낭을 入庫시키기위해 본점지하1층 外換部사무실에서 개봉, 확인하다가 현찰대신 백지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리퍼블릭·뱅크에 연락, 그쪽책임자인 커트·앤더슨(홍콩지역책임자)을 오게 했으며 다음날인 13일 하오8시 앤더슨과 로이드대리인 金기하씨(협성해운검증부장)、중부경찰서 경비계장및 순경등 경관2명、KAL의 공항화물지점 金상방과장、외환은행 鄭運晙외환부장등이 입회한 가운데 나머지 4개배낭을 모두 개봉해서 확인한 다음 확인서를 전부받아두어 만약의 경우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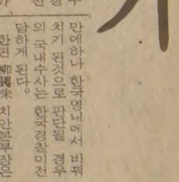
◇鄭春澤 외환은행장

돈안오고 종이뭉치 引渡…계약무효

2백만달러에 대한 수입대금도 계약이행이 완료돼야만 대금을 지불하는 일반 상품수입의 경우와같은 절차를 밟기때문에 아직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鄭春澤행장은 韓美양국의 수사당국이 조사를해서 범인을 밝혀내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에서 범죄가일어난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鄭행장은 보안상 외화수입규모와 횟수, 절차등을 밝힐수는없지만 여행경비지급과 관련해서 고액권달러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외화를 수입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외화수입은 現送경비와 인도조건등을 공개입찰에 붙여 최저 낙찰자로부터 수입해온다고 말했다.

1百弗짜리 항시부족

美貨 現札은 왜수입하나…



海外여행자 現金소지 원해 올 3억5천5백만弗 換錢

은행이 달러를 수입해오는것은 현찰이 부족하기때문. 은행이 갖고있는 현찰에비해 수요가 많기때문이다. 특히 1백달러짜리 고액권은 수요가 너무많아 항상 모자란다. 외환은행이 이번에 1백달러짜리만 2백만달러어치나수입해오게 된것은 고액권 부족때문이었다.
은행에서 나가는 외화현찰은 대부분 여행경비지급용이고 수출입이나 외자도입 외채상환등은 모두口座결제를하기때문에 현찰이 필요없다.
은행측 자료에의하면 연간 여행경비지급액은 4억달러내외이며 올들어 10월말까지 지급총액은 3억5천5백만달러이다.
이중 여행자수표(TC)로 지급되는 것은 28~29% 정도, 크레디트카드(비자카드)로 지급되는 것은 0.2%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현찰로 찾아가고 있다. 현찰도 그 중 90%이상이 1백달러짜리 고액권으로 찾아간다는 것이 은행측 설명이다.
은행은 물론 내출 현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1백달러짜리 고액권을 많이 찾기 때문에 늘 부족한 상태이며 따라서 주기적으로 고액권 수입을 해와야 한다는 것이다.

◇현송배낭이 끌러져 2백만달러의 현찰이 백지로 둔갑한사실이밝혀진 외환은행본점지하1층 외환부담당자책상(X표) 바로 뒤에 금고가있다.

외환은행이 이번에 리퍼블릭·내셔널·뱅크로부터 달러를 수입하게된것은 이 은행이 최저가격으로 응찰했기 때문이라는것이 은행측 설명이다.
리퍼블릭·뱅크는 현찰수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으로 수송경비나 인도조건이 다른은행들보다 유리하기때문에 외환은행과는 基本契約이 체결돼있으며 외환은행과 잦은거래가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朴武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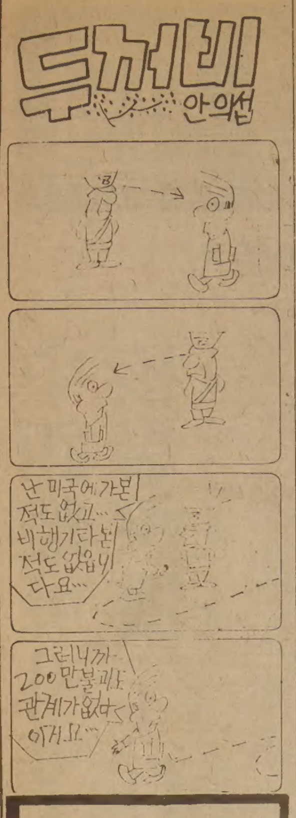
◇同型의 행낭 이번 가짜행낭과 같은모양의 리퍼블릭 내셔널뱅크의 현금행낭. 다른은행과 달리 행낭에 아무런 표지가 찍혀있지않다.

安全위해 거의 輸送機편으로 들여와

KAL機便 現金수송은…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수송할때는대개 KAL을이용하는데 달러는 뉴욕·LA·東京에서 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는 日貨를 일본으로 실어나를때 현금수송작전이 벌어진다.
돈을 운반할때는 거의화물기만 이용한다. 일반여객기는 승객이 많이 타기때문에 정보가 샐경우 기상에 갱들이 탑승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현금수송은 1개월에 한두번정도인데 한번수송량은 2백만달러내외. 지금까지는 외환은행의 뉴욕지점대 서울본점간의 수송이었는데 RNB(리퍼블릭·내셔널·뱅크)의 경우는 이번이 두번째.
달러의 수송은 위험하기때문에 용역회사에 맡긴다. 이번 증발된 2백만달러도 RNB가 아모드익스프레스에 용역을, 외뢰한 것. 용역회사가 돈을 RNB본점에서 싸서 봉인하고 봉인한위에 RNB마크를 찍는다. 용역회사직원이 비행기 출발 10분전 기내에 탑승, 은행직원의 입회아래 봉인된 현금행낭을 기내에 실을때 기장은 용역회사직원의 ID카드를 확인한후 사인만 받으면 된다. 봉인넘버는 기장이 확인할수도 없고 확인할 의무도 없다. 다만 봉인 여부 수량만 확인하면 인수인계는 하자가없다. 【崔善宗기자】

리퍼블릭銀行이란 리퍼블릭·내셔널·뱅크는 미국 뉴욕(5번가 452번지)에 본점을둔 세계은행순위 2백82위의 대은행으로 자본금이 7천달러(79년 6백42만7천달러), 총자산이 44억8백40만5천달러에 달하고 있다. 총예금잔고는 32억8천7백만달러, 대출잔고는 20억9천만달러 규모이다. 우리나라에는 지점이 없고 홍콩지점(책임자 커트·앤더슨 부총재)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을 관장하고 있다. 외환은행과는 현찰 수출입거래실적이 많은 편이며 현찰수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널리 알려져있다.



전문檢事制가 생긴다

지능犯罪대처 내년부터實施 公安·強力·經濟등 구분

오랫동안 논의가돼왔던 전문검사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대검은 날로 복잡·지능화해져가는 각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내년부터 전문검사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마무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우선 공안(公安) 강력(強力) 보건(保健) 경제(經濟)등 4개분야에걸쳐 먼저 전문검사제를 실시키로 했는데 첫 전문검사교육의 대상은 임관후 4~6년이되는 5~7호봉검사가 될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간부는 25일 지금까지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경력이나 적성에 대한 평가가 소홀한채 필요에의해 임시방편으로 단행돼온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각종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검사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앞으로 경력과 적성평가를 받아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검사로 발탁된 검사에게는 인사상의 특전을 주어 지방근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그 분야의 부장검사까지 승진되는 길을 트기로 했다.
검사의 전문교육은 자체교육과 해외연수등으로 구분되는데 검찰은 이미 전문검사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의 공안부검사들을 대상으로 두번째 자체교육을 실시중에 있다.

30代주부 被殺 下衣 벗겨진채

【仁川=聯】25일 상오7시40분께 仁川市南區玉蓮洞97 앞 개울에서 이동네에 사는 文英淑여인(36)이 하의가 벗겨진채 물속에 엎어져 숨져있는것을 이동네에사는 金鎭一씨(6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文여인의 남편 金五福씨(38·보일러기사·玉蓮洞97)에 따르면 文여인은 최근 1주일에 2~3회씩 해만지면 외출, 늦게 귀가하는등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는데 사건전날인 24일하오8시40분께 직장일을 마치고 귀가해보니 2명의 어린남매만 집에 남겨놓고 부인은 외출했었다는것.
南區玉蓮洞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이거나 우발적 강간살인사건이 아닌가 보고 수사중이다.

佛유명商標 도용 구두·핸드백팔아

業者5명 立件

서울시경은 25일 한국에특허를 낸 프랑스의 유명상표를 도용, 핸드백과 구두등을 만들어 판 朴根植(28·서울中區明洞2街52의13·세리느양화점주인) 金永浩(29·서울西大門區大峴洞56의76·세리느양화점주인) 鄭昌烈(46·서울中區明洞2街55·랑콤양화점주인) 李英淑(51·여·서울西大門區大峴洞54의1·헤르메스양화점주인) 林在哲씨(21·서울龍山區梨泰院洞73의11·랑뱅양화점주인)등 업자5명을 상표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朴씨는 지난77년 9월부터 프랑스특허업자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를낸 세리느(CELINE)라는 상표를 도용, 핸드백, 구두등에 붙여 지금까지 8천여만원어치를 팔아왔고 鄭씨는 랑콤(LANCOME)상표중 「C」자를 「K」로 고쳐 지난해8월부터 지금까지 3백여만원어치의 핸드백과 구두에 붙여 팔아오는등 프랑스 상표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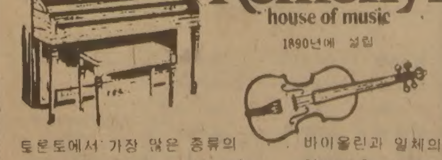
20代여인 變屍 住宅街 공장에

24일상오7시40분께 서울冠岳區奉天4洞866의7 가내블록공장(주인 鄭貞愛·30·여) 마당의 블록더미사이에서 李文英씨(29·여·冠岳區奉天2洞45의58)가 얼굴이 심하게깨진채 숨져있는것을 주인鄭씨가 발견했다.
鄭씨에 의하면 이날 아침 식사를짓기위해 나와보니 바닥구석에 쌓인 블록더미사이에 李씨가 쓰러져있었다는것.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CK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길창세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 일반광고-테레사
● 매매, 구인광고-Mrs.리
☎ : 533-2361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확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네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샾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 W
☎ : 534-2003

프로야구 5개球團主 첫모임

李振義(MBC)·朴容昆(OB)·李健熙(三星)·朴健培(해태)·辛俊浩(롯데)씨등

내년4월 시즌·오픈을 목표로 추진되고있는 프로야구 5개 구단주회의가 25일하오 6시30분부터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프로야구 창설을 주도해온 MBC의 李振義사장, 斗山그룹의 東洋맥주 朴容昆부사장, 三星그룹의 李健熙부회장, 해태제과의 朴健培사장, 롯데제과의 辛俊浩사장등이 참석, 커미셔너선출문제, 사무국과 분과위원회구성문제등을 논의한것으로 알려졌다.

그외에 이날 회의에서는 선수계약문제, 프로야구정관과 각부분의 규정문제도 다룬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 兄弟선수가 7마일경주 世界新

【피레우스(그리스) 24日AP=聯合】그리스의 크리스토스·티디스·카라기오르기오스와 아리스·카라기오르기오스형제가 23일 7마일 경보에서 44분12초로 공동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종전세계기록은 英國의 스티브·배리가 80년에 세운 44분22초였다.

킹스컵 축구 泰、北韓꺾고 우승

【방콕24日=聯合】泰國A팀은 24일밤 방콕국립경기장에서 속행된 제14회 킹스컵축구대회 결승전에서 북한에 2-1로 역전승, 작년에이어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다.

泰國은 이날 6만관중이운집한 가운데 벌어진 결승전 전반에서 1-0으로 뒤지다가 후반전에 1골을만회, 동점을 이룬후 연장25분께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승리를 굳혔다.

蘇、루마니아 제치고 先頭

모스크바 세계體操 단체전

【모스크바24日UPI=聯合】몬트리올의 요정 나디아·코마네치와 넬리·킴이 모습을 감춘 제21회 모스크바 세계체조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주최국 소련이 신예 나탈리아·일렌코와 80년 모스크바·올림픽 챔피언 엘레나·다비도바의 활약으로 강력한 라이벌 루마니아를 누르고 규정종목서 194·4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코마네치는 이번 모스크바 무대를 기피, 주관에 치우친 채점으로 분규가 끊이지않는 여자체조계에 또한번 충격을 던져 주었으며 그의 결장에 타격을 받은 루마니아도 의외로 中共、東獨에게도 눌려 189·90점으로 4위에 그쳤다. 中共은 192·60점으로 2위, 東獨은 190·25점으로 3위를 마크하고있으며, 美國은 4위 루마니아에 이어 189점으로 5위를 마크했다.

지도자 4百명선발

陸上聯、서울올림픽대비 市道別로

우수선수 3百15명도 함께

육상경기연맹은 오는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육상중흥7개년계획」에 따라 전국13개시도별 지도자 4백명을 선발, 신인발굴과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연맹은 또 각시도별로 선발한 국교부(5~6학년) 중학부 고등부(1~2학년)의 각종목별 랭킹5위까지 3백15명에 대해 성장과정과 기록등을 체크, 우수한 선수들에 대한 특별훈련을 실시키로했다.

육상연맹은 단거리와 중장거리 도약 투척등 4개부문으로 나누어 13개시도별로 1개부문에 5명씩 모두 3백60명을 선발했으며 서울에서 10명등 모두 4백명의 지도자를 선정, 각 시도별로 선수양성및 신인발굴을 기하기로 했다.

피라밋식 지도자교육은 중앙의 육상권위자가 해외정보와 스포츠과학등 선수육성에 관한 모든지식을 세미나등을 통해 각시도 지도자를 교육시키고 또 교육받은 지도자들은 선수들을 가르치게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연맹은 최소한 1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하기로했다.

한편 연맹은 국민학교13종목·중학교24종목·고등학교26종목등 63종목에서 랭킹5위에 든 3백15명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분기별로 훈련시키며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부별및 연령별 기준기록을 설정, 이기록을 통과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장학금과 훈련비등을 지급키로했다.

한국일보

서울서 국제體操대회

내년6월 美洲·유럽국가 참가

대한체조협회는 내년 6월 美洲와 유럽제국이 참가하는 국제체조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의 준비를 위해 4월 국제체조연맹(FIG)의 벵가레트 사무총장(스위스)을 서울에 초청키로 했다.

대한체조협회는 지난22일 모스크바의 제5차 FIG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金東淑회장이 이미 모스크바에서 유리·티토 FIG회장으로 부터 대회 개최지원을 약속받았으며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초청국 선별을 위해 벵가레트사무총장이 내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五輪組織委 확정

委員35명내외…英語표기 SLOOC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조직위원회와 사무처기구의 골격이 25일 밝혀졌다.

SLOOC는 대통령을 명예총재로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두고있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집행위원을 포함, 35명내로 구성되며 고문단과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다.

金義明 近鐵입단

日프로야구 드래프트실시

條件불리할땐 阪急 갈지도 金信夫투수는 南海서 지명

◇金義明

◇金信夫

금년 日本고교야구 최고의 스타로 각광을 받았던 재일동포 金義明(金村義明·報德學園)투수가 日本프로야구 퍼시픽리그 긴떼쓰(近鐵)버팔로즈팀에 1위로 지명되어 입단하게 되었다. 한편 金義明과 함께 같은 고장(兵庫縣) 출신 金信夫(金城信夫·市川高)투수는 난까이(南海)팀에 지명되었다.

日本프로야구 신인선수 스카우트를 위한 81년도드래프트는 25일 상오11시부터 東京 九段의 그랜드팰리스호텔에서 거행되어 추첨순위 1위 近鐵, 2위大洋, 3위南海, 4위中日, 5위西武, 6위 야쿠르트, 7위 롯데, 8위 阪神, 9위 阪急, 10위 廣島, 11위 日本햄, 12위 巨人팀의 순위로 취업희망을한고교·대학졸업예정의 프로지망선수를 차례로 뽑았는데 金義明은 近鐵와 阪急에 각 1순위로 지명되었으나 우선 지명의 近鐵에 낙착되었다. 金義明은 당초부터 阪急팀을 희망했었다. 따라서 近鐵과의 계약조건이 맞지않을경우 阪急와도 실랑이를 벌일 가능성이없지않다.

金義明과 투수실력에서 쌍벽을 이루는 金信夫는 南海팀에 1위로 지명되었다. 【東京支社】

祖父의 新婚旅行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③

基督敎에 民衆關心커 흐뭇

호러스·언더우드1세 부부의 결혼기념탐험여행이 얼마나 뜻깊고 극적이었던가는 할머니가 직접 쓴 「언더우드전기」속에 소상히 소개돼있다.

『언더우드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북쪽국경지대까지 이미 두차례나 여행을 했다. 그때마다 그는 민중으로부터 따뜻한 인정과 친절과 후대를 받았었다.

그러한 경험으로해서 그는 이번에도 하느님의 가호로 무사히 여행을 할수있으리라고 믿게되었다. 더우기 우리는 주한 미국공사로부터 여권을 받았으며 조정에서도 지방장관들에 대하여 짐싣는 조랑말을 요구하거나 돈이나 식량이나 담요같은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 서울에서 그 댓가를 지불할터이니 요구대로 다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여간 다행이 아니었다.

우리가 開城 平壤 江界 그리고 북쪽 국경에있는 義州까지 다녀오면서 발견한 사실은 민중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을 갖고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민중의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심히 불완전한 것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단순한 개화사상으로 알고 크게 기대를 걸고있었으나 그중에는 참다운 신자들도 없지않아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가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난폭한 민중과 구경꾼들의 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번은 강도에게 몰려들어 죽는줄 알았으나 그들이 저희들 끼리 싸우는판에 요행히 풀려나오기도 했다.

어떤 지방장관들은 여관도 주지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고서야 겨우 해결됐고 어느날은 여권을 잘못보고 우리수행원들을 잡아다가 때린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위험과 공포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안전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수있게 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신혼여행 중에 한국사람들에게 세례를 준일이 있는데 이대목 역시 할머니의 기록을 통해 가장 정확히 알수있다.

『우리는 義州에 며칠 머물렀다. 거기서 기독교신자들을 가르치다가

◇할아버지는 신혼여행중 압록강에 이르러그곳서사귄 한국인신자들에게 압록강물로 세례를 주었다.

義州선 數日間 머물며 信徒교육…30명에 洗禮주고

정이들어 서로 떨어지기가 싫었다. 언더우드님은 그들과 작별하기직전 압록강을 건너 만주땅에 들어가 약 3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우리는 미국공사로부터 한국국토내에서는 절대로 세례를 주지말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이는 한국땅을 벗어나서 중국땅에 들어가 세례주면 아무리 한국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저촉이 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루는 어떤 정숙한 부인이 우리를 찾아왔다. 義州 가까이 사는 그 부인은 우리의 전도를 받고 마음가운데 깊은진리를 깨닫게되었다.

그는 첫째로 십계명중 제일 계명을 고백하였고 둘째로 죄를 참회하여 선하고 순결한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고백하였으며 세째로 이레중 하루는 거룩한 날로 지키고 항상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고백했던 것이다.

그는 義州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宣川가까운 자기집에 돌아가 일가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자기의 새신앙을 고백하고 전도했다』

호러스·G·언더우드와 릴리아스·호톤 부부는 결혼한지 1년반만인 1890년 9월6일 첫아기를 보게 되니 바로 나의 아버지 元漢慶(1890~1950년)이다.

아버지의 미국이름은 호러스·호튼·언더우드로 부모가 다같이 미국사람이지만 분명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릴적 친구들이 거의다 한국어린이로서 한국사람과 똑같이 자랐다고 한다.

내년세계劍道 파견 代表후보 13명선발

검도회는 제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82년7월 브라질 사웅파울루)에 파견할 한국대표후보 13명을 선발했다.

검도회는 후보선수들을 합동훈련시킨뒤 자체평가전을 거쳐 내년초까지 대표선수 9명을 확정한다.

◇검도대표 후보

朴在圭 朴學鎭 宣忠根 盧永鎭(이상 서울) 張洪均 李全淮 鄭鎭權(이상 전북) 李春馥 高圭哲(이상 충북) 朱石榮(부산) 尹泰老(인천) 朴東哲(전남) 金成一(충남)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送年女流短篇

내발에 등불 <3>

梁貴子 作 金光培 畵

겨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멋진 날씨였다. 아침부터 잔뜩 구겨진 채 음울하게 내려앉던 하늘에서 드디어 하나 둘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잠깐 사이에 시멘트 바닥의 마당이 은빛으로 뒤덮였다. 메마른 마당의 모습이 감추어지자 그만큼의 풍요가 그 위로 솟아올랐다. 희끗희끗한 눈발 사이로 보여지는 세상은 뭉개어 놓은 팔레트의 흰빛처럼 측량할길없이 따습고 정다왔다.

올들어 두번째의 눈이었다. 첫눈은 첫눈답게 대단히 미미한채 끝나버렸으므로, 푸지게 내린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늘을 바라다보며 사람들은 자못 흥겨워했다.

눈이라니. 나는 시린 손끝으로 만들어내던 기타소리에 어지간히 지쳐있던 판이었으므로 이내 옷을 주워입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단행하는 외출이었다. 외출이 주는 설레임과 쏟아지기 시작한 저 함박눈이 풍겨주는 풍성함은 모처럼 나를 달뜨게 만들었다.

눈은 그랬다. 사람들의 얼굴 모습까지 바뀌게 하는 마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눈이 지니고 있는 순결이 사람들의 얼굴 위로도 옮아앉은듯 그들은 어제의 수심을 지워내고는 서로의 어깨를 부비며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문득 강하게 밀려드는 외로움을 느꼈다. 예고도 없이 돌연 날 기습한 외로움의 전율이 내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들었다. 내 낡은 구두코만 내려다보며 구두코위에서 녹아 물방울이 되는 눈을 바라다보며 나는 정처없이 헤매었다.

그때, 숙인 내 얼굴 앞으로 불쑥 내밀어진 손이 하나 있었다. 희고 갸름한 그 손이 펴지면서 손바닥 위에 얹힌 토큰 한개가 보석처럼 깜찍한 빛을 발했다.

아, 승희.

신음처럼 나는 그 이름을 뱉어내었다. 가슴 한켠에서 그 이름은 여태껏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녀의 조그마한 얼굴이 보여주는 미소에, 눈이 부셔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승희』

여자가 이번에는 흰 이를 조금 드러내며 웃었다. 토큰 한개로 얻은 웃음치곤 정말 신나게 기분좋은 것이었다. 여자의 눈썹 위로, 머리칼 위로, 미색의 털목도리위로 흰나비처럼 눈은 내려앉았다가 스러졌다. 앞에서 뒤에서 혹은 옆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툭툭 치며 지나갔다.

『우리도 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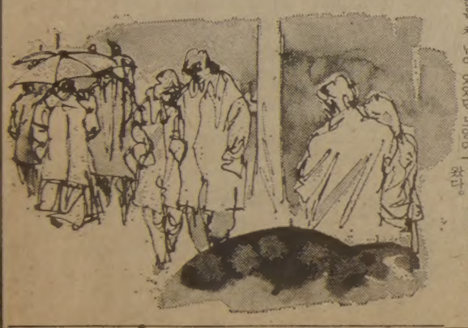
여자의 입술이 꽃잎처럼 잠시 열렸다가 닫혔다. 조금전까지 내 온몸을 휩쌌던 외로움은 이미 흔적도 없어지고 대신 내 가슴속은 충전된 배터리모양 충만한 힘으로 넘쳐 흘렀다. 쏟아지는 눈 속에 운좋게도 여자라니, 게다가 이 여자의 새침한 모습과 보너스같이 안겨오는 희디 흰 미소란.

눈이 점점 푸지게 쏟아지자 사람들중에 하나 둘 우산꽃이 피기 시작했다. 눈은 좋으나 축축하게 젖기는 싫은 그들 옆에서 여자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발이 시려요.

돌아다보니 거리는 이제 온통 흰색의 도회로 변해 있었다. 어디선가 날아와 그의 작은 비둘기가 되어준 승희 역시 하얗게 젖어있었다.

『어디든 들어가요』

우리는 발을 멈추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을 잔뜩 뒤집어 쓰고 매달린 다방의 아크릴릭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流星의 賦 <24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感傷異國月 ⑩

결국 통신상사(通信上使)로선 첨지 황윤길(僉知黃允吉), 부사(副使)로선 사성 김성일(司成金誠一), 서장관(書狀官)으로선 전적 허성(典籍許筬)이 임명되었다. 11월18일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통신사가 거동하려면 적어도 수십명의 수원이 있어야만 했다. 그 인선이 한창일무렵 홍계남은 안성에 있었던 것인데 이영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온것은 2월초순께였다.

이영은 계남에게 다음과같은 말을 했다.

『이번 통신사 일행에 홍공을 끼우려고 내가 마음먹은것은 홍공의 투철한 안력(眼力)에 기대하는 바도 물론 있었기 때문이지만 이 기회에 홍공이 출중한 공로를 세우길 바라는 때문이오. 공이 커지면 출생의 근원을 따지는 일은 없어질 것이오. 내 일전 홍공의 모당(母堂)을 모독하는 말이 있다는 풍문을 듣고 적이 분해했지만, 그 풍문을 퍼뜨린 놈을 붙들어 법에 의해 국문한 처지가 아니니 부득이 분을 풀려면 그놈을 사사로이 처치해야 될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되려 이편이 법을 어긴 자로 되어 곤경에 빠질 것은 뻔한 일. 흉측한 말은 들어도 안들은척 하는 것이 상책이오. 인지위덕(忍之爲德)엔 가릴것이 없소. 홍공이 서울을 싫어하고 전리(田里)에 가 있는 그 심정은 그러한 욕설을 듣게된 어머니가 안타까와서 하는 탓이란걸 내 잘알고있소. 한데 어머니를 빛내게 하려면 홍공이 나라를위해 공을 세워야 하오. 일시에 격한 마음으로 분풀이를 한것이 아니라 적덕누공(積德累功)하여서 빛을 발하여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시오』

『고맙소이다』

계남은 충심으로 이영에게 감사했다.

『일본이라 하면 수로천리(水路千里), 풍도 위험한 것이지만 바다에 익숙한 일본인들의 향도를 받고 가는 것이니 과히 염려할 건 없겠지』

하고 이영은 최근 조정에 생겼던 일, 정여립사건의 전말을 얘기하곤

『홍공, 내가 일찌기 얘기한 바 있지 않던가. 여립에게 대한 욕곡의 원수는 다른 사람이 갚아줄거라』

하며 껄껄 웃었다.

홍계남은 그 언젠가 하석이 제기한 의혹을 이영에게 말해 보았다. 일개 수찬에 불과한 정여립이 어떻게 그런 세망을 모았을까, 하고.

이영의 대답은 간단했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이란 말이 있느니. 끼리끼리 비슷한 놈들이 모이는 거지. 충신의 편이 천명이면 역적의 편도 천명이라고 하잖던가. 간사한 꾀를 쓰면 그만한 세망(勢望)쯤은 누구도 모을 수 있을걸세. 정여립이 거사하여 만일 성사라도 했더라면 그런 놀람도 가져볼만 하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는가. 실패한 일을 들먹여 인물을 논할 필요는 없는거요. 실패할 작정이면 나도 천하를 도모할 수 있겠어』

계남이 이영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싸하다고 생각했다. 안된 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순 없는 일이다.

이영과 계남은 처남과 매부의 관계로 돌아가 오래간만에 간담 서로 비치는 얘기를 나누고 긴 밤을 즐겼다.

수로천리 저편에 있는 일본에 가게되었다는 것이 어쩌면 꿈만 같았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BLOCK BROS
NATIONAL REAL ESTATE SERVICE

칼가리 오일 붐 타운!
칼가리로 이사를 오시렵니까?
비지네스를 찾으십니까?

금주의 리스팅

	SALE	ASKING	DOWN
GEOCERY	$27,000/mon	$84,000.	$35,000.
	30,000	99,500.	99,500.
FAST FOOD	$1,500 /day	$560,000.	$560,000.
	400 /day	71,000.	71,000.
	450 /day	68,900.	68,900.
DOUNUT SHOP	$600 /day	$135,000.	$135,000.

그럼 정월남을 찾아 주십시요.

전화 : (B)403—245—4381
(R)403—246—0211

함께 성장하는

캐네디안들. 그들은 다른 문화배경을 지닌 출신들이며, 캐나다의 많은 지역 출신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크고 훌륭한 국가의 자랑스런 시민들로써 함께 생활하며 성장하고 있읍니다.

10년전 정부에서는 복합문화정책을 공식화 했을때, 우리의 이 거대한 땅덩어리의 문화적 상기점을 인식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가 형성된 많은 세습문화권 사이의 이해와 정신적 앙양및 성장하는 발전에 대한 공양이였읍니다.

GROWING TOGETHER
ANNIVERSARY
MULTICULTURALISM CANADA
MULTICULTURALISME CANADA
ANNIVERSAIRE
S'ÉPANOUIR ENSEMBLE

복합문화주의에 대한 우리의 관련은 이번 10주년기념일이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보다도 강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 우리 국가의, 자신들의 보다나은 이해를 가져옴을 지속시킬 미래의 우리 축하식전에 참가합시다…

함께 성장하면서.

Canada

Minister of State Multiculturalism
Ministre d'État Multiculturalisme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인

도넛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금, 토근무, 오후11시~아침7시.
☎ : 482-4088

스토아 헬퍼구함(주중)
KINGSTON & MIDLAND
☎ : 266-6355

유경험자 스토아 헬퍼구함(목, 금, 토, 일)
DON MILLS와 SHAPPARD
☎ : 491-9701

서니일이나
자수하실 분 구함
☎ : 244-1635

크럽자켙만들 재봉사 모집
☎ : 241-5348

FULL TIME 쿡 구함
주 6일일함.
☎ : 421-6016

"봉재사 급구"
●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KEELE & WILSON 지역 가게에서 일할 경험자.
FULL OR PART TIME HELPER 구함
☎ : 221-2084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파타임 헬퍼구함.
(스카보로지역이면 좋음)
☎ : 267-4770

매매및 양도

성업중인 GIFT SHOP 매매
짧은시간(10~6시까지) B) 656-6660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OPEN R) 224-2227

여자분이 혼자 하실수 있는 CANDY SHOP 팝니다.
(일요일은 문닫음)MALL안에 있음.
☎ : 278-3975

BATHURST & QUEEN근처 : 방6개 있는 집, 좋은조건
금방 팔 수 있고 좋은 가격과 복덕방 안낌
☎ : 445-9486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200 아스킹 : $29000
☎ : 423-9899

스토어 장비 팝니다.

1500~2000스퀘어피트 꾸밀수 있는 장비임.
☎ : 886-2743
881-2019

COMMERICIAL BUILDING FOR SALE
2 STORY BRICK DETACHED WITH FULL
BASEMENT GARAGE & PARKING FOR STORE
& 3 BEDRM APTMENT OR OFFICE. VARIETY
BUSINESS EQUIPMENT & STOCK OPTIONAL
☎ : 694-7781

건물및GROCERY STORE 매매
매상 : $3,500~4,500
☎ : 535-0028(MR. KIM)

급매 혹은 RENT(VICTORIA PK×FINCH 근처)
고급주택지 4BED ROOM, 4BATH ROOM,
LINK HOUSE. 3STORY. 2400 Sq.ft.
지하실 완전꾸며짐, FIRE PLACE, BALCONY.
가격 : $110,000 ☎ : 862-1433, 493-8792

도나스샾 급매 :

BEST OFFER, 주매상 $4000보증
WHOLESALE+RETAIL
☎ : 532-9955(오후2시 이후연락바람)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 줄1칸 …… 3회 ………… $10.00
● 줄1칸 …… 5회 ………… $13.00
● 줄1칸 …… 10회 ………… $26.00
50자 이내로 내용을 적으시고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우편 도착 다음날부터 게재해 드립니다.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TUCK SHOP
HAMILTON 소재 1600 SQ. FT.
RENT : $350 5½YR, 10YEAR OPTION
APARTMENT COMPLEX에 위치한 유일한
TUCK SHOP임.
현월수 순수익 : $4,000보장.
10시~10시사이 (MRS. 전)
☎ : 1-662-4705

버라이어티 스토아 PLUS2베드룸 아파트 매매
스카보로에 있음. 최저 주매상 : $2,500
보증하고 $4,000으로 올릴수 있음. 좋은리스,
GLORIA GRANT 나 NINA WARREN에게 연락요.
☎ : 694-3336, 690-9983
FAMILY TRUST CORPORATION REALTOR.

대단히 성업중인 드라이 크리닝 비지네스
를 건강상 이유로 양도코자함.
①금년도 매상 목표액 : $150,000 이상
②금년도 순수익 목표액 : $60,000 이상
☎ : 493-0429 (저녁8시~9시 연락바람)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구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집·방세·하숙

631A BLOOR ST. W. 2층 사무실 SUBLET합니다.
12월1일 입주가능
☎ : 535-6004

BLOOR & DUFFERIN
2베드룸, 교통편리
☎ : 537-5164

태권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보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 R) 281-1954

미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악기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4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꽃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기타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니혼·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차마구씨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s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한국일보
식품점서 판매중